



- 1. 2월 21일 (토) 19:00
- 2. 2월 21일 (토) 20:00
- 3. 2월 21일 (토) 21:00
- 4. 2월 22일 (일) 19:00
- 5. 2월 22일 (일) 20:00
- 6. 2월 22일 (일) 21:00
- 7. 2월 23일 (월) 19:00
- 8. 2월 23일 (월) 20:00
- 9. 2월 23일 (월) 21:00
- 10. 2월 24일 (화) 19:00
- 11. 2월 24일 (화) 20:00
- 12. 2월 24일 (화) 21:00
- 13. 2월 25일 (수) 19:00
- 14. 2월 25일 (수) 20:00
- 15. 2월 25일 (수) 21:00
- 16. 2월 26일 (목) 19:00
- 17. 2월 26일 (목) 20:00
- 18. 2월 26일 (목) 21:00
- 19. 2월 27일 (금) 19:00
- 20. 2월 27일 (금) 20:00
- 21. 2월 27일 (금) 21:00
- 22. 2월 28일 (토) 19:00
- 23. 2월 28일 (토) 20:00
- 24. 2월 28일 (토) 21:00
- 25. 2월 29일 (일) 19:00
- 26. 2월 29일 (일) 20:00
- 27. 2월 29일 (일)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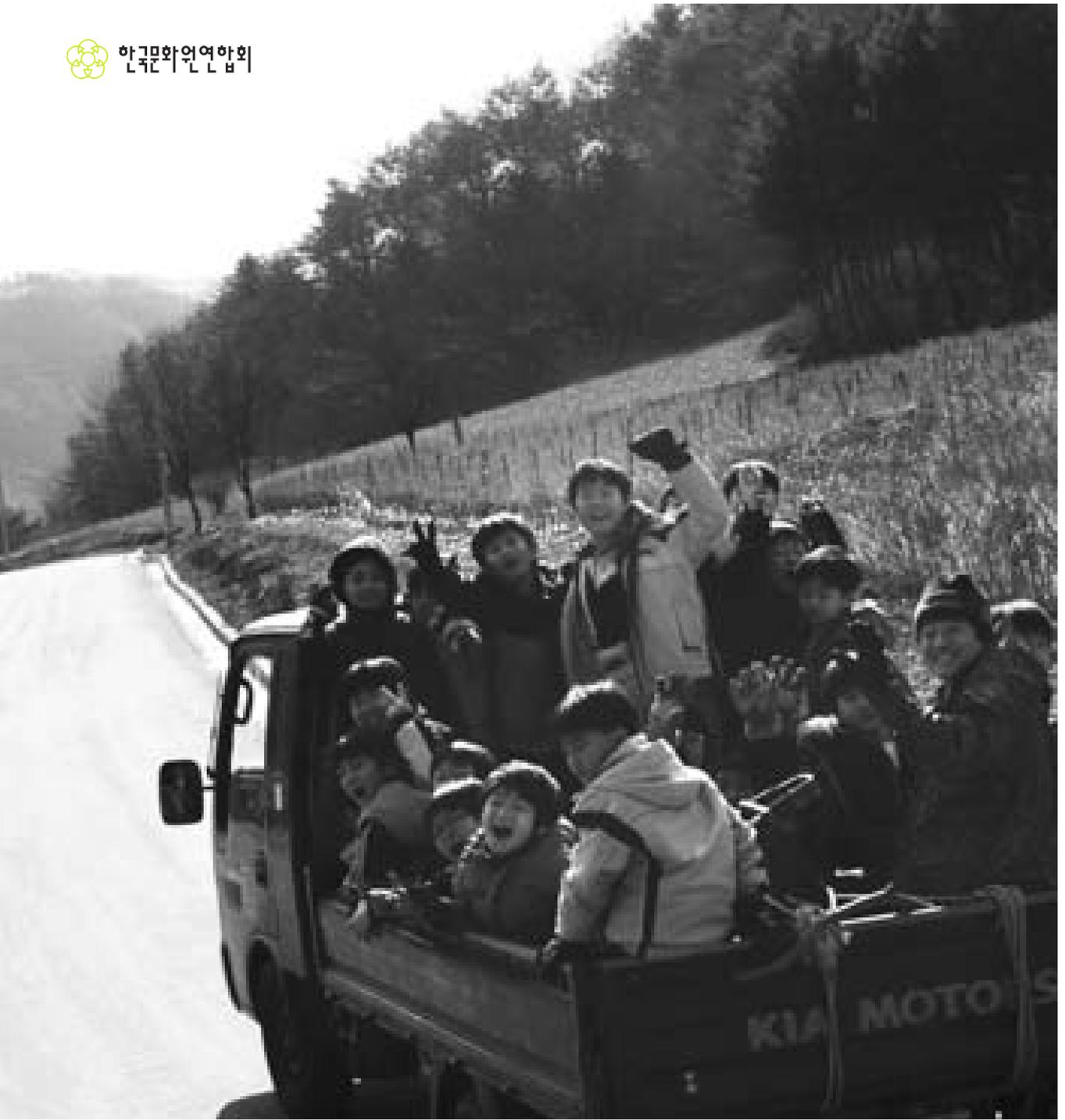
“문화로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다문화 국악유지집 **러브인** Love in Asia **아시아**

2009. 2.21(토) - 3.29(일) 지역순회공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문화재단협회 소리나루

● 문의 02-481-1031(소리나루), 02-3704-9726(문화체육관광부)



2009
2

Vol. 199 February

우리문화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위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09.2 우리문화

통권 199호 February



표지 | 하안문화원 집 거울 캠프 중의 아이들

등록번호 서울마029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박호환(대신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 02 칼럼
- 04 연합회 소식
제48차 정기총회
- 06 문화원 탐방
금산문화원
- 10 연재
문화원을 듣는다
- 14 문화원 이야기
동대문 문화원
- 17 공주 문화원
- 18 광명 문화원-하안문화의 집
- 20 특집 느리게 사는 사람들
어울려 살기
- 24 신안군 증도-느린, 더 느린, 아주 느린 섬
- 28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 30 기획 입춘과 대보름 세시풍속
- 33 기획
한국의 제의례
- 36 특별기고
세계화 시대에 문화원의 역할
- 39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 54 우리문화 소식
- 56 신간소개
- 60 원장동정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지역의 행정기관과 문화재단 등에 지역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이관하는 정책은 향후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이다.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로서는 예상한 것 보다 훨씬 어렵고 긴 1년이었을 것이다. 지난 수 십년 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여럿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만큼 출범 1년이 힘들었던 정부는 없었다. 승례문이 불타고 촛불이 길거리에 넘치고, 그리고 전대미문의 미국 발 금융위기 앞에서 약속과 바램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정치와 경제 분야의 정책과 다르게 문화정책은 논쟁의 여지가 그렇게 큰 분야가 아니기는 했지만 문화정책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혀 정책적이지 않은 이유들로 문화예술계가 논란에 휩싸이고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 대신에 감정적인 앙금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발전과 우리의 삶을 문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허와 실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과연 과거 정부의 문화정책과 차별성이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짧은 글에서 두 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정책이념을 보면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문화정책 이념은 문화민주주의였다. 문화의 민주화와 더불어 현대 문화정책의 중요한 두 축이 되는 이 정책이념은 문화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60년대 후반의 서구의 사회문화운동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시절 이러한 문화정책의 목표로서 문화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 기존의 각종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들도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광의의 문화개념을 수용하도록 하여 문화정책의 영역을 넓히도록 하는 측면과 더불어 타 정책영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야기했다.

이러한 문화민주주의 이념은 보다 상위의 국정이념인 자율, 참여, 분권과 같은 국정이념과 결합하여 다양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문화예술진흥원을 독립제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전환시켰으며 문화예술교육의 대대적인 진흥을 위한 정책도 시작되었다. 문화향수권에 대한

강조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권리 보장은 문화복지에 커다란 정책적 관심을 갖도록 했으며 복권기금에서 상당액을 여기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정도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지만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가지원을 크게 강조하였으며 실제로 지원분야와 총액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문예진흥 기금이 일부 소진될 정도로 방만한 측면이 있었으며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체계성이 결여되어 지원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구체적인 전달체계가 성과도출을 위한 조건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에 대한 강조가 선행되어 구호로 그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야기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시행착오가 나타났다. 그래서 스스로도 의욕에 비해 성과가 빈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에 비하여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우선 눈에 띄는 구호가 없다. 또한 '창의 한국' 과 같은 비전서 성격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따라서 문화정책에서 비전이 없다는 혹은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을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강한 이념을 비전으로 설정하는 대신 주어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속의 예술지원, 그리고 지원사업의 지역이관 및 협력 강화 등 주로 지원정책에서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가치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념을 제시하고 다시 그에 부응하는 각 분야에서의 정책을 제시하는 대신, 각 분야마다 개별적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정책의 이념적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구호가 가까운 비전 제시는 이념을 분명하게 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영역 간의 여건과 이해의 상충으로 자칫 상호 모순되는 정책들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정책은 앞으로도 이념지향적인 성격의 구호를 지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 지원방식의 변화에서 강조된 것들이 가져오는 효과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진흥을 강조하여 입법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보다는 문화예술지원사업 가운데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에 이관하는 것이 가져오는 변화와 그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올해부터 전국 광역단위의 행정기관과 문화재단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 좋은 사

례이다. 해당 지역에서 문화예술 지원사업 가운데 지역에 해당하는 일정부분을 직접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향후 전체 지역 문화예술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발전의 강조는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참여정부 시절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실질적인 권한의 배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행정기관과 문화재단 등에 지역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이관하는 정책은 향후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지난 정부와 차별성을 갖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방향은 '4대강 정비'와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4대강 정비사업은 단순히 토목공사 성격이 아닌 문화, 관광, 그리고 체육 및 여가 관련 분야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4대강이 흐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 그리고 여가 관련하여 시설조성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고려만이 아니라 각종 향토 및 민속자료, 전설 같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역시 동시에 추구될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문화정책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조될 전망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정책방향 역시 비록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그 정책적 파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하여 각종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조성 및 운영 등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정책영역 가운데 하나인 문화정책은 정부가 바뀔때 마다 새롭게 보이는 정책이 제시되곤 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게는 욕망으로 또 강박관념으로 다가오곤 했다. 그래서 차별성 있는 이념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같은 정책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들도 자주 있었다. 성과와 효율을 지향한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거창하고 현란한 이념의 표방과 그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현실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과 조건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세월이 흘러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무렵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정책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연합회 소식

한국문화원연합회 제48차 정기총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제 27대 회장에 최종수 회장 만장일치로 재선출 감사에 고창식 원장(평창) 정경진 원장(나주) 선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최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7차 총회에서 승인한 국고예산과 기금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과 실버문화축제는 전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공동개최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는 지방문화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제1호 의안인 200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과 제2호 의안인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의를 건을 각각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받았으며 제3호 의안인 임원 선출의 건 중 감사 선출은 4명의 추천 후보자 가운데 비밀투표를 시행한 결과 평창문화원 고창식 원장과 나주문화원 정경진 원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5명의 부회장과 7명의 이사는 회장에게 위임되어 추후 선임하였다.

부회장 | 박인호(은평) 오용원(평택) 박응진(논산) 조재인(여수) 조훈래(함안)

이사 | 김종(광주서구) 한근수(유성) 정정희(당진) 김복현(익산) 권창호(포항)

박수호(군위) 임영주(마산)

또한 지난 2008년 7월 연합회장으로 취임했던 최종수 회장은 만장일치로 2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최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원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정부 관계자들과 적극적 논의를 하는 등 문화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말하면서 문화원의 단결과 협조를 강조했다.





- 1 정기총회 전경
- 2 27대 회장으로 선임된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 3 감사로 선임된 고창식 평창문화원장
- 4 감사로 선임된 정경진 나주문화원장
- 5 문화부 지역문화과의 노정동 사무관과 장희식 주무관이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 있다(우로부터)
- 6 감사 선출을 위해 투표 중이다



삶이 피어나는 문화원, 금산

문화원은 문화원인데 이름이 문화원이 아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세 시간이 조금 안 걸리는 시간에 금산 터미널에 도착해 큰 길로 내려가다 보니 웬 건물들이 줄지어 있다. 이름도 하나 같이 '~의 집'이다. 금산문화원이 어디냐고 물으면 금산 사람들은 잘 모른다. 대신 다락원의 '문화의 집' 하면 모르는 이가 없다. 금산문화원이 문화의 집이 된 사연이 궁금해 발걸음을 재계 돌려본다.



금산문화원? 금산 문화의 집?

금산문화원은 여러모로 특이할 만한 문화원이다. 일단 그 이름부터다. 사무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금산문화원 현판이 있지만 이 건물의 귀퉁이에는 분명 ‘문화의 집’이라고 써어있다. 이 모든 건물을 아우르는 이곳은 금산의 문화 공간 ‘다락원’이라고 한다.

“금산의 이 시스템은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다락원은 문예회관, 도서관,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등 문화예술복지 전반의 모임동산입니다. 물론 문화원도 그 중 하나이죠. 전체적으로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즐기는 입장에서 간편하죠.”

다락원 내에 웬만한 시스템은 다 갖춰 있으니 공연을 한번 해도 강당 섭외하느라 썰썰 맬 일 없고, 사람들이 위치 찾느라 헤맬 일 없다. 군에서 운영해 그 이름도 일률적으로 ‘~의 집’으로 맞추었기에 문화원이 문화의 집이 되었다. 문화원에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한다.

18개의 얼굴 금산문화원

가뜩이나 특이한 모습의 금산문화원은 그 운영도 심상치 않다. 바로 운영의 열개다. 금산민속보존회, 금산농악회, 금산인삼골합창단 등 문화원 내에서 자체 운영하는 단체만도 18개다. 사무국 직원 셋으로는 어렵도 없는데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단다.

“그걸 저희가 다 관여하지는 않아요. 물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만 세세한 사항은 단체 내에서 결정하고 시행합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회원 분들이 워낙 다 열성이세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유명회원이 없어요. 회비만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활동이 따라야 문화원 회원으로 인정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들은 자연히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요. 사업계획 제출부터 예산 신청까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안국장이 밝히는 운영의 비결은 바로 자율이었다. 이 18개 단체는 ‘마을에 뭐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강좌로 개설해 교육한 것이 씨앗이 되어 줄기를 이루고 가지가 되어 지금의 단체로 성장한 것. 결국 문화원 회비 구성으로만 1년에 약 삼천 만원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문화원 가족의 활동까지 두 마리 토끼를 안은 셈이다.



금산문화원의 김호택 원장



장동달맞이축제-유등제

작은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금산은 하도 축제가 많다. 함께 즐기고 어우러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금산문화원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4계절 축제가 있다. 봄이면 '산꽃나라 산꽃여행' 여름이면 '금강민속축제' 가을이면 '인삼축제' 겨울에는 '장동달맞이 축제'다. 큰 행사이지만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각 단체장들이 잘 움직이는 터라 이제 문화원은 슬슬 눈을 돌려보는 중이다.

이 마을에 뭐가 있을까. 이것이 시작이었다. 마을에서 특화할 만한 지역적 특이성을 발굴해 발전시키는 게 그 골자가 된 것이다. 지역성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문화원의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마을에서는 고된 논일을 끝내고 한 자락 부르면 너도 나도 흥얼흥얼, 그것이 놀이가 되고 축제가 되었을 것이다. 축제는 것이 그저 앉아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 함께 즐기는 것, 그것이 문화원의 오래고 넓은 시간 속에 축적된 결론이었다.

그래서 이번 해부터 야심차게 기획하게 된 것이 바로 '삶꽃문화사랑'이다. 마을의 문화를 개발 육성하여 문화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외부의 문화를 삼기보다 그 마을의 특이할 만한 향토사를 개발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주체가 마을주민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소득창출까지 기대해 보는 것이 삶꽃문화사랑의 핵심이다. 문화원은 이 조용한 겨울도 숨 돌릴 틈 없다

금산문화원과의 인연

금산문화원은 올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생겼다. 이곳에 잘못(?) 발을 들여놓은 또 한 사람, 김호택 원장은 금산역사문화연구소의 소장을 맡으면서 문화원과 연이 닿았다. 아버님 권유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지역사에 관심이 많아 금산역사문화연구소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 지역사가 묵은 옛날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 더 나아가 미



제야의종소리-풍각쟁이



금강민속축제-농악



금강민속축제



래에 접목시키는 일이 김원장이 품은 꿈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발걸음이 원장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하는 일만 많아 문화원 일에 소홀한 것 같아 늘 미안하죠.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 문화원 식구들이 감싸 줘요. 문화원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건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야 알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게 문화만 쫓는 사람들, 바로 사무국 직원 덕분이라는 걸요. 다 그들로 인해 뿌려진 열매들이죠, 지금의 금산문화원은.”

울 한해도 서로 고맙고 미안해하며 금산문화원은 바쁘게 달릴 것이다. 잠은 손을 기억하며, 그것이 문화원 제1의 재산이라고 마음으로 되뇌며. 문화원에는 사시사철 꽃이 핀다. 뽕뽕 언 땅이 녹고 싹이 나오는 그곳에는 금산 사람들의 삶을 피울 준비가 한창이다.

문화원 식구들 좌부터 석현숙 간사, 전병만 과장, 김호택 원장, 안용산 국장

[문화원을 듣는다]

연수에서 배우고 놀고 꿈꾸기



2008년도 6월에 있었던 '한국시 외국어낭송회'

문화예술 활동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연수구민들의 정서순화는 이 고장에 대한 일종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

인천에서 만우금이라는 곳은 연수구의 옥련동, 동춘동, 청학동, 연수동 일대를 말한다. 물론 지금은 행정상의 지명으로 만우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만우금에 대한 설화가 두세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옛날 문학면과 남동면 사이에 깊숙한 갯골이 만수동 앞까지 뻗어 있어 물이 들 때 그곳까지 배로 건너가면 400~500미터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이지만 온통 빨이기에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육지로 걸어서 가야하는데 그러려면 10리 이상을 돌아가야 하니 가깝고도 멀다 해서 만우금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가깝고도 먼 곳 '만우금' 이야기

문학산 밑에는 선사시대에 것이라고 추정되는 패총이 아직 있는 것으로 봐서 거기서부터 갯벌이었고 그런 땅이 바로 연수구인 것이다. 이렇게 연수구는 조금씩 조금씩 빨이 메워져 형성된 신도시이며, 지금은 바다를 매운 송도경제자유구역까지 행정구역상 연수구에 속해 있어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 미래형 도시이다. 하지만 이곳에도 크고 작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이 있고 설화가 있고 바다와 접해있으므로 해서 어부들의 생활관습 등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1989년을 마지막으로 맥이 끊어진 동막도당처럼 거의 사라진 풍습이 대부분이다. 오늘날의 연수구의 모습은 빨을 메우고 조성된 신도시이

기에 연수문화원이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며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한다는 것은 곧 한계에 이르게 된다. 우리로서는 그런 것을 배제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도시의 모습과 걸맞게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외지에서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문화 예술이라는 개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이나 사회 속에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렇다면 이곳으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예술 활동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연수구민들의 정서순화는 이 고장에 대한 일종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구민 대화합을 추구하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수문화원

연수문화원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구민들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180여개의 문화강좌가 있어 한 학기 3000여명이 각기 그들의 취향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이 문화학교에서 배우고 만든 공예품이나 미술품 같은 결과물을 연말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 그 외에 것



중 공연이 가능한 과목 혹은 체험할 수 있는 과목은 가을에 한번 있는 '연수구민과 함께하는 연수문화원 회원축제마당'이라는 행사에서 부스를 마련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게 하며 강좌별 프로그램을 위한 전시 및 시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소통과 화합의 지역을 꿈꾸며 구민과 문화수강생을 대상으로 유적지탐방, 전시관람, 공연, 철새탐사 등의 연중행사과 강사들을 위한 워크샵도 진행된다.

연수문화원은 2004년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받아 지역의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체험학교'라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평생교육사업으로 연수구 관내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 불우한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강좌, 공연 등을 한다. 주강사를 초빙하여 보조강사들과 함께 이곳에 파견하여 소외계층에게 학습에 도움을 준다. 보조강사들은 문화원 측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연수문화원 평생교육과정에서 인형극전문지도사양성과정, 독서지도교사양성과정, 문화유산해설사과정, 사물놀이 등 전문지도사양성과정에서 고급과정의 지식을 이수한 회원들로 형성된 문화원 소

속의 7개 학습동아리 회원들이다. 또한 연수문화원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 연중 그곳에서도 많은 전시를 운영한다. 지역의 미술인들을 위한 전시는 물론 국제교류전도 개최하며, 일정기간을 배정하여 문화원 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위한 '열린 미술아카데미', '갤러리에서 배우는 체험 미술의 세계' 등의 이름으로 도자기만들기, 그림그리기, 강의 등 미술 전반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들의 결과물을 전시한다.

연수문화원의 여러 프로그램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이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카데미사업(교사직무연수, 매개자 및 전문인력양성과정 등), 지원사업(학교문화교육부문, 사회문화교육부문 등), 네트워크사업 등 연중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의 교육과정에서는 마지막 시간대에는 그 과목에 맞게 미술관, 오페라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렇게 연중 시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네트워크사업 중 동거동락이라는 연속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겠다. 이것은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 시행한 <동거동락(同居同樂), 두 번째 이야기- '주민생활공작소'이다. 이 사업은 2008년도 11월12일부터 12월07일까지 연수구 연수2동 연수1차 시영아파트 단지 내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뒷마당에서 시행되었다. 연수문화원과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 손을 잡고 스페이스 '빔'(인천시 동구 배다리 소재 대안문화공간)이 합작하여 '생활창작과 재활용(실용)공작', 우리마을사진관(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영정사진을 마련해 드린다). 아이들을 위한 신나는 공작교실, 일요벼룩시장이라는 5개 단계로 진행된 사업이다. 연령에 맞게 준비된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며 그들은 일정기간만 하지 말고 일 년 내내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향토사사업으로 「연수문화유적 깊이알기」라는 작은 책자를 발간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연수구의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강사가 안내를 한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의 역사, 문화 등에 관한 경시, 백일장, 사진 등의 경진대회가 있어 우열을 가려 표창하기도 한다.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지원받아 <향토사대중화사업>이 진행되는데 07, 08년도에 시행한 「인천의 숨은 명인을 찾아서」 외에 또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구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관계로 그들을 위한 사업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한글교실, 한복을 입혀 전통예절을 가르치며 요리를 강의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한다. 올해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좀 더 다양한 과목을 증설하는 한편, 6쌍에게 전통혼례를 올려줄 예정으로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낭송하는 기회를 갖기도

연수문화원이 전국규모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문학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시작품 중 좋은 작품들을 엄선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 4개의 외국어를 선택하여 번역하고 시집을 만들어 작가와 해당언어의 원어민이 함께 시를 낭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낭송함으로써 우리 시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함은 물론 현대음악, 국악, 전통춤 등 공연을 통해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시키기는 데도 목적이 있는 ‘한국시 외국어 낭송회’가 있으며, 한국우수 시인, 작가들을 초대하여 작품해설과 강연을 듣는 ‘작가와 대화’가 올해도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인천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들을 선정하여 작가와 함께 작품의 무대가 된 곳을 문학평론가, 지역향토전문가와 함께 찾아가서, 향토전문가의 그 장소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강의와 작품에 배경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등에

대한 작품세계를 직접 작가가 강연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와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료집을 제작 하여 배포하는 ‘작가와 함께 떠나는 인천문학기행’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으나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굵직한 것 몇 개만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보았다. 학생들 이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적지탐방 껌별이나 산의 자연생태관찰 등 외지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사실은 멀리 갈 수 없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극장이러든가 강당 같은 좀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연수문화원은 현재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기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내에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단독원사가 생길 것을 꿈꿔본다.



김 원 옥 인천연수문화원원장

문화원 이야기

동대문문화원

실버문화축제 2008 전주



이분들이 할매라구요? 아니죠, 왕언니들이죠~

동대문문화원 왕언니 클럽

실버문화학교와 동대문문화원의 왕언니클럽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함께 변하고 있다.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양식과 문화는 물론 인간의 수명까지 과거보다는 많이 연장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변한다는 것이다. 물론 변화하는 사회만큼 자신이 변화를 수용하고 또 거기에 적응해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수명의 연장은 단순한 장수의 기쁨 외에 문화와 복지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함께 주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작금에 우리에게 고령화 사회라는 화두가 던져 졌고 이것이 가지는 문화와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 말이다. 이런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실버문화학교' 였을 것이다.

동대문문화원은 처음부터 '실버문화학교'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특성상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 사업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1문화원 1사업 원칙



하에 청소년 쪽을 택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었다.

때 문에 향후 실버문화 사업에 합류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우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위탁사업비에서 적지않 예산을 편성하여 시작하기로 하고 첫해에 시범사업으로 한지공예와 할머니 중창단 두 개 과목을 개설하였다. 물론 먼저 시작한 전국의 실버문화교실을 모티브로 하기는 했으나 조금은 독창적이고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과목을 선정한 결과였다.

지 역마다 나름의 특색과 사정이 있듯이 동대문구 역시 오래전 부터 역사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형성되었고 이 때문에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분포를 보였다. 토박이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간 터를 잡고 살아온 소위 상경 1세대가 많은 지역이다.

그 만큼 고령자라 하더라도 대개의 사람들이 생활일선에서 활동을 하던 이들이라 유행에 민감한 편이었다. 그래서 중창단의 경우 그저 노래만 잘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역동적이고 유행을

따라 모든 세대가 공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탄생한 팀이 1기 '동대문문화원 왕언니클럽' 이었다.

할머니들의 춤바람, 왕언니클럽으로!

노래와 안무를 곁들여 흘러간 노래부터 최신 곡 그리고 젊은 세대의 노래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준비하고 수업에 들어갔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무국장으로서 그들에게 주문한 것은 "부담 없이 즐겁게 노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 그때는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었다.

가끔 전문미용사를 불러 메이크업이나 무대용 헤어스타일 세팅방법 등의 특강을 하였다. 할머니라고는 하지만 역시 여자는 여자였다. 모두 예뻐지기 위해서 열성을 내기 시작했고 그 이후 스스로 무대화장을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드디어 연말에 한지공예작품전시회를 겸한 왕언니클럽의 발표회를 가졌다. 그러나 한지공예반이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작품들을 전시했지만, 건물생심이랄까 전시가 끝나기 무섭게

자신이 만든 작품이라고 각자 보파리를 써서 모두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좀더 두고 높은 평가를 받으면 내년도에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설득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당장 자신이 가져가는 게 더 급했던 모양이다. 다른 문화원에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어찌라 그제 인 간의 본성일 것인데….

그 후 찾아가는 문화 활동무대에 왕언니 클럽이 한 두 차례 공연을 하고 나자 이구동성으로 저 아줌마들이 누구냐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거였다. 아무리 봐도 동네 할머니들이신데 청바지에 흰 남방, 스포티한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하면서 일사분란 하게 허슬을 추는 모습에 모두가 매료되었고 그들을 할머니들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 거기다 “이모든 공연이 라이 브로 진행되었으며 이분들의 평균연령이 63.5세이며 많게는 60 세 이상 69세까지로 구성되었다.”고 소개하자 다시금 놀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다음해에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실버문화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2기 왕언니 클럽의 시동을 걸었다. 인원도 전년도에 두 배를 뽑았다. 그리고 레퍼토리도 댄스를 곁들인 중창 외에도 드럼 난타와 대중가요를 접목한 레퍼토리를 추가하였다. 사실 맨 처음에는 15명 정도를 선발하여 교육했으나 겨우 8-9명 정도 남았었는데 다음해에는 탈락자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아니, 그만두라고 해도 못 그만둔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관내의 노인시설과 복지시설 등각종 공연에 초청 되었으며 소문을 듣고 젊은이들의 전문음악방송인 M-net에서 섭외가 들어오기도 했다.

화합으로 더욱 성장하는 왕언니들

평생 집안 살림만 하든가, 가게를 돌보고 살아왔던 이들이 어느 날 방송에 출연하게 되자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잠까지 설쳤다는 것이다. 그것도 연예인들이나 간다는 강남 청담동의 고급미용실에서 미용이며 메이크업을 받았으니 그 흥분은 더 했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이후 여러 방송국에서 섭외가 오기도 하였고 금년 초 182개 팀이 참가한 MBC-TV 어르신 가요제에서 왕언니팀은 은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지역사회의 유명 인사 반열에 올랐다. 또한 실버문화학교를 통해서 즐거움과 자신감을 얻어 집에서도 화 낼 일이 적어졌고 그러니 집안분위기도 좋아졌으며 특히 영감님께서도 흐뭇해하신다며 문화원의 실버문화학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고 고마워한다.

실버문화학교를 진행하는 어느 문화원의 실무자나 사무국장님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나 역시 이런 일련의 성과도 있었지만 어려움이나 마음고생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먼저 한지공예반의 유쾌하지 못한 기억과 함께 팀원 간의 불화도 나를 힘들게 하였다. 인원이 늘어나자 소위 따로 노는 그룹이 생긴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모인 자리가 아난가. 그런 그들을 볼 때 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이며 서로의 팀워크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즐긴다는 생각으로 임하라고 부탁했다.

제3기 실버문화학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이들이 받은 것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되돌려줄 수 있는 진정한 언니 그중에서도 왕언니가 될 것으로 믿는다.

얼마 전 MBC에서 받은 상금으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만세인사를 했다.

동대문문화원
실버문화학교 만세!!

한국문화원연합회
실버문화학교 만세!!! 라고….



강임원 동대문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 이야기

공주문화원

예술하는 공주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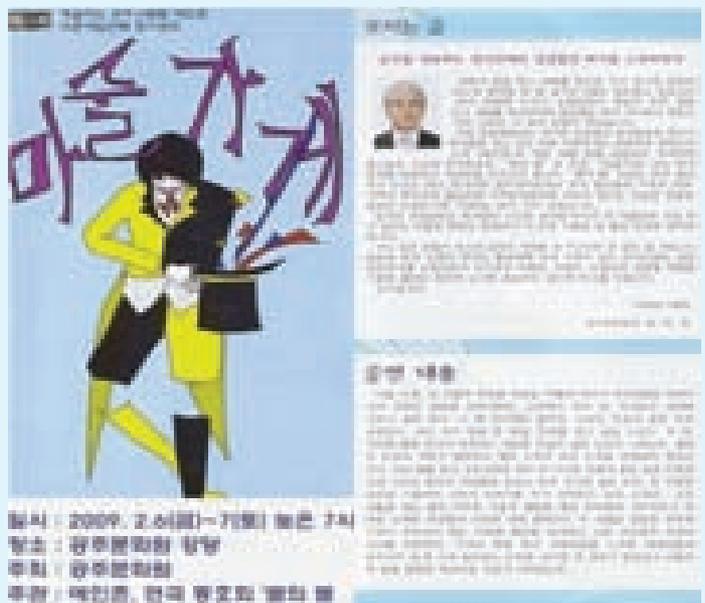
예인촌 마흔여덟 번째 정기공연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은 2월 6일과 7일 늦은 7시부터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예술하는 공주시민들 예인촌 마흔여덟 번째 정기공연' 을 가졌다.

이번 예인촌 정기공연은 공주출신으로 구성된 연극동호회 '별의 별' 을 초청, '미술가게' 라는 연극 공연을 마련했다.

공주문화원 정재욱 원장은 정기 공연에 초청하면서 공주여중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별의 별' 은 지역 연극계의 활성화와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야심찬 목표를 갖고 출범한 단체이기에 더욱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공연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술가게'란 이름의 초고급 의상실, 어둠이 내리자 마네킹들은 저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리 밖 인간들의 세계에 가 보고 싶어 한다. 그 때 인기척이 들리고, 수상한 모습의 늙은 도둑이 등장한다. 뒤이어 젊은 도둑이 등장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투가 시작되지만 이미 별을 달고 교도소를 다녀온 노련한 늙은 도둑에 비해 나이도 어리고 세상물정 모르는 도둑 초년생 젊은 도둑으로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윽고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한다. 늙은 도둑은 도둑생활을 하는 동안 터득한 기술과 방법을 젊은 도둑에게 가르쳐주고 한바탕 노래도 부르면서 두 사람은 정당한 대우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회 고위층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한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자유로움을 느끼며 마네킹들과 어우러져 질펀하게 돌아보는 도둑들, 하지만 곧 경비가 등장하고 이들의 한 밤중 향연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사회를 풍자하면서 많은 여운을 남긴다.



문화원 이야기

광명문화원



하안문화의 집과 함께 하는 생생 자연 속으로

part1 전래놀이 겨울 공동체 캠프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2박 3일의 여정으로 강원 황성의 고라테이 전통테마 마을에서 하안문화의 집 주관으로 공동체 캠프가 열렸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 캠프는 겨울철 아이들 프로그램의 전반적 부족과 하안문화의 집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를 운영기조로 삼은 것, 또한 2007년 시행한 마당극 놀이 열~쑈가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모듈별 공동체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기획되었다. 자연 속에서 컴퓨터나 텔레비전이 없어도 충분히 놀 수 있다는 것, 또한 서로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존재감을 통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



특히 마당극이 주는 자발성의 힘에 더욱 주안점을 두었는데 주어진 역할의 일방향적 수행이 아닌 창작자로서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 함께함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자연과 함께 하기, 전래놀이 함께 하기, 공동체 놀이 체험하기 등의 주제로 여러 활동을 즐겼으며 얼음썰매를 타거나 모닥불로 구운 양미리와 오뎅이를 먹으며 친분을 쌓았다.

또한 험난한 산행 중에도 서로 끌어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날은 고드름을 따서 서로 나눠먹기도 하고 두부만들기를 통해 직접 만든 두부를 먹어보는 기회도 가졌다.

2박3일 동안 친구랑 놀고 같이 지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참 보람 있었다. 특히 친구들이랑 나무 베러 갔을 때가 제일 기억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야생 두더지를 보았는데 정말 귀여웠다. 여름에도 꼭 오고 싶다. _광문초 민혜주

2박 3일동안 친구들과 놀면서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 많은 것을 배우고 첫째, 둘째 날에는 썰매도 타고 고구마, 양미리를 구워먹기도 하였다. 둘째 날에는 밤에 캠프ไฟ어를 하고 낮에는 나무를 하러 산에도 갔었다. 마지막 날에는 두더지를 보고 신나게 놀았다. 그리고 두더지는 정말 귀여웠다. 여름에 꼭 오고 싶다. 선생님 여기 와서 같이 놀아주시고, 저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참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곧 헤어져야 하니 아쉽네요~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_광문초 송재현



어울려 살기

LOHAS 시대와 SLOW 인재융합

새로운 선진사회 창출의 기회가 오고 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미 글로벌화가 되어있고 1일 생활권과 안방시대로 변한지 오래다. 물론 수도권에서 1500리나 떨어진 지리산고을의 작은 중소도시인 남원에서 세계정세와 경제불안 여파는 어김없이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자신의 미래를 분명히 희망적으로 봐야 할 이유를 가지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으로 움츠리고 지내기보다는 새롭게 다가오는 선진사회 창출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준비하며 능력을 키우는 인재융합의 로하스 사회 실현과 느림의 미학을 배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사무실에서 가끔은 늦은 밤까지 서류를 뒤적이는 것이 다반사인데도 힘들지 않는 것은 단순히 고생한다는 차원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지역의 리더, 시청 공직자들과의 교감으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대한 미래비전과 철학을 키우면서 새로운 지리산 고을 남원사회를 만들어보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말도 안 되는 몽상수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역시 한편으론 삶에 활력소를 준다.



박찬웅 남원문화원 사무국장



지역의 리더들과 융합하고 문화 복지 사회를 꿈꾸는 능력과 철학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젠 지역문화의 시대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상상력의 시대, 생생하게 꿈꾸는 자의 것인 것처럼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만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조금씩 지역문화와 지역발전방향을 연구하며 지역의 리더들과 융합하고 문화복지 사회를 꿈꾸는 능력과 철학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거기다 웰빙 시대 다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로하스시대에 열정과 철학과 인재연계사업의 발굴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미래를 창출하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도 '차원이 다른' 명품으로서 나 자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사회는 그간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너무도 쉴 새 없이 급하게 겪어 왔다. 더욱이 교통과 통신, 네트워크와 글로벌화의 발달은 더욱더 쉴 수 없게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이렇듯 이미 통제가 불가능해진 세계경제의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이른바 "가장 빠른 것이 미덕인" 속도전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해 온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엔 다시금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자아성찰하면서 느림의 미학을 배워가는 것이 절실하다. 1보 전진을 위한 2

보 후퇴전략이 있듯이 이젠 느림의 미학도 함께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급한 성격의 우리사회 모습은 분명 글로벌적인 시각과 가장 로컬적인 행동력을 무기삼아 각기 속한 지역에서 차별하게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필요한 문화복지의 삶을 실현하는 명품사회, 즉 창조도시와 창조농촌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 요즘 이탈리아의 '파올로 사투르니'에 의해 시작된 슬로우 시티(Slow City)운동은 참으로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전라도의 담양, 신안, 장흥은 슬로우 시티를 표방하고 슬로우 시티에서의 핵심개념인 '느리게 천천히 살자!' 라는 느림의 미학을 도시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즉 삶의 여유익을 생활화하면서 일상적인 주민생활을 공해 없는 자연환경 속에서 제철에 맞는 먹거리와 먹거리며 향토와 지역문화를 지키고 향유하며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한 아름다운 삶과 어울림의 도시를 가꾸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속도지향의 사회'을 벗어나 좀더 '느리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타야

세계화의 직접 영향에 속한 한국사회와 한국경제는 여유가 없이 달려왔다. 따라서 차별함을 갖추면서 속도지향의 사회'를 벗어나 좀더 '느리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타야 한다. 지난해 2008년 9월에서 12월까지 지리산 자락의 남원 농촌체험마을인 추



어마을에서는 각기 자기 사업장들이 있는 10여개 지역의 기업사장과 지역농민, 시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교사 등 20인이 의기투합하여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사회적 공익과 슬로우 라이프 실현, 두레정신회복'을 창출해보겠다는 '꿈꾸는 유기농 열정배추'라는 이름의 농촌기획프로젝트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거의 4개월간을 주중에는 열정배추를 창출하는 기획회의를 하고 주말에는 유기농 친환경 농장에 모여 지역 실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안전 먹거리로서 친환경 유기농 배추를 키웠고 수확을 할 때에는 도시소비자도 불러 농촌체험행사도 진행하는 등 도시와 농촌을 상생시키려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이른바 "천천히 사는 삶의 의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고 농촌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서로 돕는 지역 리더로서 품앗이 문화를 만들고자하는 새로운 인재융합사업으로 농촌농업-식품의식-향토문화-자연환경의 전문가 그룹 형성을 시도하였다. 참으로 신선함이 있었던 사업이었다.

"마치 마법의 힘이 느껴지고 모두의 정신세계가 연결되어 끈끈한 형제에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지역 리더들이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개인적인 사익보다는 품앗이 문화와 친환경적인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했으며 실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유기농 배추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까지 하는 등 우리들 스스로가 마치 열정배추가 된그런 기분과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남원시의원 박문화)

어울림의 삶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다. 한 번의 지역리더 모임으로 출발하였지만 벌써 이 모임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형 일자리를 자신들이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혁신 선진시스템을 동원, 융합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즉 지리산 고을에 농촌-음식-문화-자연이 하나로 융합된 "지리산 블랙푸드 테마파크"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국가자본이 없는 순수한 민간자본을 동원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고 한다. 한국사회는 이제 국제자본의 식량자원전쟁에서 반드시 선점해야만

하는 과제에 놓여있다. 또한 우리문화의 스토리텔링 산업도 그 소재와 멀티콘텐츠를 발굴하고 산업화하여 "컬처노믹스"화 하는 문화일자리로 연계해야 일류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 이제 상품을 제조하는 시장에서 문화와 이야기를 파는 인재 융합형 산업으로 프로모션과 마케팅으로 혁신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울림과 느림의 철학을 배우며 지역발전의 상상력을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다.

느림의 미학은 자아성찰과 잔잔한 감동을 준다

최근 한국 독립영화 한편이 크게 화자되고 있다. 농촌 다큐멘터리영화인 [워낭소리]가 그것으로 국내 독립영화 사상 최고기록인 70만명 가까이 관람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농촌 노부부와 늙은 황소가 만들어낸 휴머니즘과 함께 삭막한 도시 및 초스피드 시대와 상반되는 농촌의 정경과 소꿉을 등 느림의 미학이 스피드를 자랑하는 현대 물질문명 사회 속에서 중요한 자아성찰이 되고 잔잔한 추억의 감동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50년 뒤, 100년 뒤의 우리가 사는 지역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지방문화원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래사회의 핵심인 디지털중심의 사회 혁명, 인재중심의 지식정보화, 기술진보의 세계화 국제경쟁, 다문화사회의 세계 휴먼네트워크, 복지추구권에 따른 삶의 질 행복추구에서 잘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미래학자인 덴마크의 랄프 안센 박사와 미국의 MIT 공대의 니콜라스 네그로 폰테 교수는 각기 상상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도 상호 공통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화를 키우는 국가와 민족만이 미래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지자체와 지방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우리네 일상도 이전 "빨리빨리" 문화와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음식을 천천히 먹고 여유 있는 시간 관리를 비롯하여, 빠른 교통편을 자제한 걷기 생활과 자전거 타기

를 일상화하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독서와 생각 키우기 등의 느리게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활행동 123법칙으로 널리 알려진 [자신의 말은 1분만 말하고 상대방 말은 2분간 들어주며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3번 생각하라] 법칙도 인간과 인간사이에서 올바르게 접근하여 생활화 하고 또 자연과 동식물 속에서도 각기 자신과 더불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어울림과 우리문화체험, 느리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행복한 지름길이다. 이미 교육·문화·쇼핑·취미·여가 등 모든 생활이 디지털화되고 멀티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가 너무 빠른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세대간 융합사업 같은 신활력사업으로 ‘느리게 사는 훈련’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세대에게 어울림과 우리문화체험, 느리게 사는 훈련을

산림청에서는 최근 산길을 걸으며 산림생태, 문화, 역사를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림체험 숲길 1,500km를 2016년까지 전국 12개소에 조성키로 했다고 한다. 내가 사는 지리산권역에도 현재 국내 최초로 산림청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지리산 숲길'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구간 300km)을 조성하여 무조건적으로 산꼭대기만을 오르고자 하는 산악문화를 바꿔 우리 생활주변에서 걷기와 명상과 느리게 사는 어울림을 확산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치료해 주는 상생의 숲길을 만들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사람도 변해야 한다. 그러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느낌과 성찰을 생활화 하는 것과 어울림의 상생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일 것이다. 선진한국사회를 통한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서라도 말이다.



모두들 빨리 앞서 나가려고만 하는
이 시대에 느리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 의미는 커녕
과연 느리게 살 수나 있을까.
슬로우 시티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서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신안군 증도

느린, 더 느린, 아주 느린 섬

슬로우 시티로 지정되다

바야흐로 빠름의 시대. 문명을 구성하는 모든 토대들이 속도에 목을 걸고 무한 질주 중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늦추는 법이 없고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세상이 열리면서 사고(思考)의 속도까지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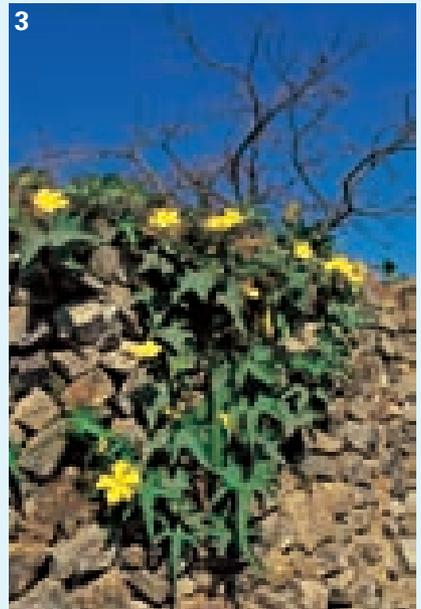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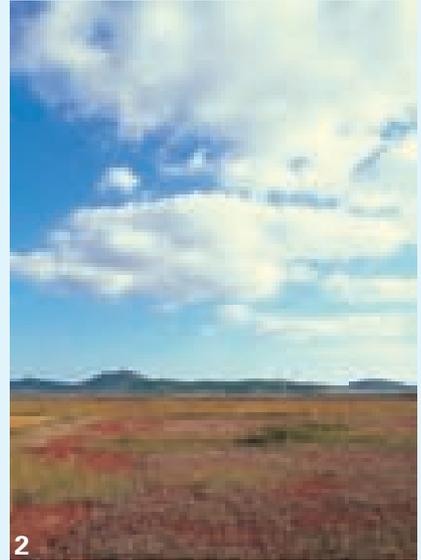
특히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빠르지 느린지조차 가능하지 못한 채 격류에 휘말리듯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간다. 주문한 지 5분이 안 되어 나오는 패스트푸드, 한 번의 클릭으로 전송되는 이메일 등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낱알이 발진하는 기술 속에서 분명히 편리해진 시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슬로우 푸드(slow food), 치타 슬로우(citta slow) 등 슬로우 운동이다. 이 중 치타 슬로우는 슬로우 시티(slow city)라고도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어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 치타(citta)가 바로 이탈리아어로 도시라는 뜻이다. 현재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독일 등 세계 각국의 93개 도시가 치타 슬로우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현재 4곳이 지정되어 있다. 치타 슬로우는 자기 고유의 지역 특색을 유지한 채 환경오염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인구 5만명 이하의 도시라면 어디나 신청이 가능하다.

진정한 보물 천일염

그런 슬로우 시티 중 하나가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다. 지난 2008년에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증도는 예부터 소금염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섬이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보물섬으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1975년 고기잡이를 하던 한 어부의 그물에 도자기 한 점이 걸려 올라오면서부터다. 1984년까지 이 일대 해역에서 계속된 해저발굴조사 끝에 중국 송, 원대의 도자기를 비롯한 2만3천여 점의 유물이 바다에서 올라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은 물론이고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증도가 사람들에게 보물섬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 같지만 증도는 원래부터 충분히 여행 목적지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일단 증도로 가려면 신안군 지도에 있는 지신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신안군의 섬들은 연육교로 이어진 곳들이 많은데 아직 증도를 잇는 연육교는 완공되지 않은 탓이다. 지신선착장에는 커다란 증도 관광안내표지판이 서 있는데 증도면이라는 글자 옆에 보물섬이





라고 쓰여 있어 마치 금은보화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뜬금없는 기대감이 든다.

증도에 입도하고 나면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이 염전이다. 굳이 물어 찾을 필요가 없는 게 포구가 있는 버지 주변은 온통 염전으로 가득 차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염전인 태평염전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질이 좋기로 유명하는데 일반 정제염이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것에 비하면 이곳의 천일염은 그야말로 느림의 미학을 구현하는 듯하다. 태양과 바닷물, 그리고 바람과 갯벌이 25일 간 사람의 손을 타며 깨끗한 양질의 소금을 만든다. 천천히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나온 이곳의 소금은 일반 정제염과는 비교도 안 되게 미네랄 함량이 많다고 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게 본다면 도자기 같은 옛 유물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된 소금이야말로 진정한 이 섬의 보물이 아닐까.

국내 최대 규모의 태평염전

태평염전은 증도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이곳에 오면 관광객들이 실제 소금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커다란 바둑판처럼 짜인 염전 안으로 들어가 소금을 고르는 고무레질도 할 수 있고 바닷물을 염전

으로 끌어들이는 수차를 직접 밟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 체험한 일들이 고작 25일 중 하루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새삼 놀란다. 이렇게 천천히 하루하루 공들여가며 한달 가까이 작업을 해야 비로소 천일염이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염전은 이 곳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생계수단이지만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는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이색적인 체험이 된다. 이렇게 생산된 소금은 염전과 길의 사이를 갈라놓은 소금저장고에 보관된다.

염전의 바로 앞에는 아트막한 아산이 솟아 있다. 염전 전망대 가는 곳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면 염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염전 전망대다. 염전 끝에는 2007년에 개관한 소금박물관이 있다.

증도의 갯벌에 대해 좀더 체험하고 싶다면 짚뽕어다리로 가보자. 짚뽕어다리는 우전해수욕장 좌측편 바다 위에 400m가 조금 넘는 길이로 설치된 나무로 된 다리다. 썰물 때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갯벌에서 짚뽕어, 게, 조개 등을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생태학습장이 된다.



5



6



7

당신의 삶의 속도

증도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길도 더디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진지 오래지만 증도에는 아직 섬 특유의 매장 풍습인 초분이 남아 있다. 초분은 사람이 죽고 나면 풀 같은 것으로 덮어 임시로 무덤을 만들어 두었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 다시 땅에 묻는 방식이다. 이는 사람의 영혼이 뼈에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가매장 풍습이다. 이렇듯 증도에서는 삶도 죽음도 빠른 것이 없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튼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당신의 계절은 아직 봄인데 남들이 다 여름으로 간다고 해서 계절을 급히 바꿀 수는 없지 않냐고, 당신의 계절에 머무르라고, 당신의 시간에 맞게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라고, 어쩌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느리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실은 느린 게 원래 속도니까. 슬로우 시티 증도에서 당신의 속도를 원래대로 조절해보는 것은 어떨까

최성덕 여행칼럼니스트

1. 저녁 노을을 받아 붉고 노랗게 물든 갯벌의 물골.
2. 구분포 가는 길에 바라본 역사와 그 너머로 펼쳐진 하늘과 바다.
3. 섬마을 돌담에 활짝 핀 수세미꽃.
4. 증도에 자리한 태평염전. 염부들이 소금을 거두고, 나르고 있다.
5. 소금창고 안에 소금이 쌓여가고 있다.
6. 구분포로 넘어가는 비포장 산길. 역사와 바람의 길이다.
7. 20년 동안 소금꾼으로 살아온 채판심 씨가 소금을 거두고 있다.
8. 증도에서 바라본 아침 포구와 바다.

8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40일간의 여행



지난 1월 5일 경기도 파주 ‘늘푸른 자활의 집’ 노숙자를 대상으로 출발한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활동은 2월 13일 제주 서귀포 ‘미타윈’을 마지막으로 40일간의 여행을 모두 마쳤다. 그 동안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면 모두 242개소를 방문, 25,644명에게 따뜻한 문화의 향기를 전달하였다, 또한 봉사단으로 활동한 문화예술인만도 2,578명이나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웃음 복주머니(마당극, 인형극, 노래 및 연주 등) 전통 복주머니(국악, 민요, 한국무용 등) 미술 복주머니(미술인과 함께 우리 마을 꾸미기 등) 건강 복주머니(생활제조, 건강검진 및 체력 측정, 스포츠 처방 등)가 있다.

242개소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노인 91회, 일반주민 71회, 장애인 46회, 아동청소년 27회, 다문화가정 3회 외국인 근로자가 1회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권 제외) 경기 33회,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각 32회, 강원 21회, 충북, 20회, 제주 8회이다.

장소별로는 복지시설 165개소, 마을회관 49개소, 문화시설 19개소, 학교 3개소, 시장 5개소, 종교 시설이 1개소이다.



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선 방문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사업에 관심이 많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강원도 정선군 중증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원장 신현만 신부)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유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문화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후에도 문화부는 365일 전국 방방곡곡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지방 문화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

1.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2. 공연 관람 중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측에서 네번째)과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우측에서 두번째)
4. 건물의 앞마당에서 노래를 하면 이곳이 곧 공연장이 된다



기 획 — 춘 보 풍 입 대 세 과 름 속

대지에 봄기운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춘은

이십사절기의 첫 번째 절기이다.

따라서 한 해의 시작을 입춘으로 보아온

농경사회의 오랜 전통아래

새 절기가 시작되는 이 날을 맞아

우리 조상들은 신성한 봄기운이 잘 들어오기를

축원하는 글을 써서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고

일 년의 무사태평함을 비는 등

정갈한 마음으로 입춘을 맞이하였으며

어느 절기보다 다양한 세시풍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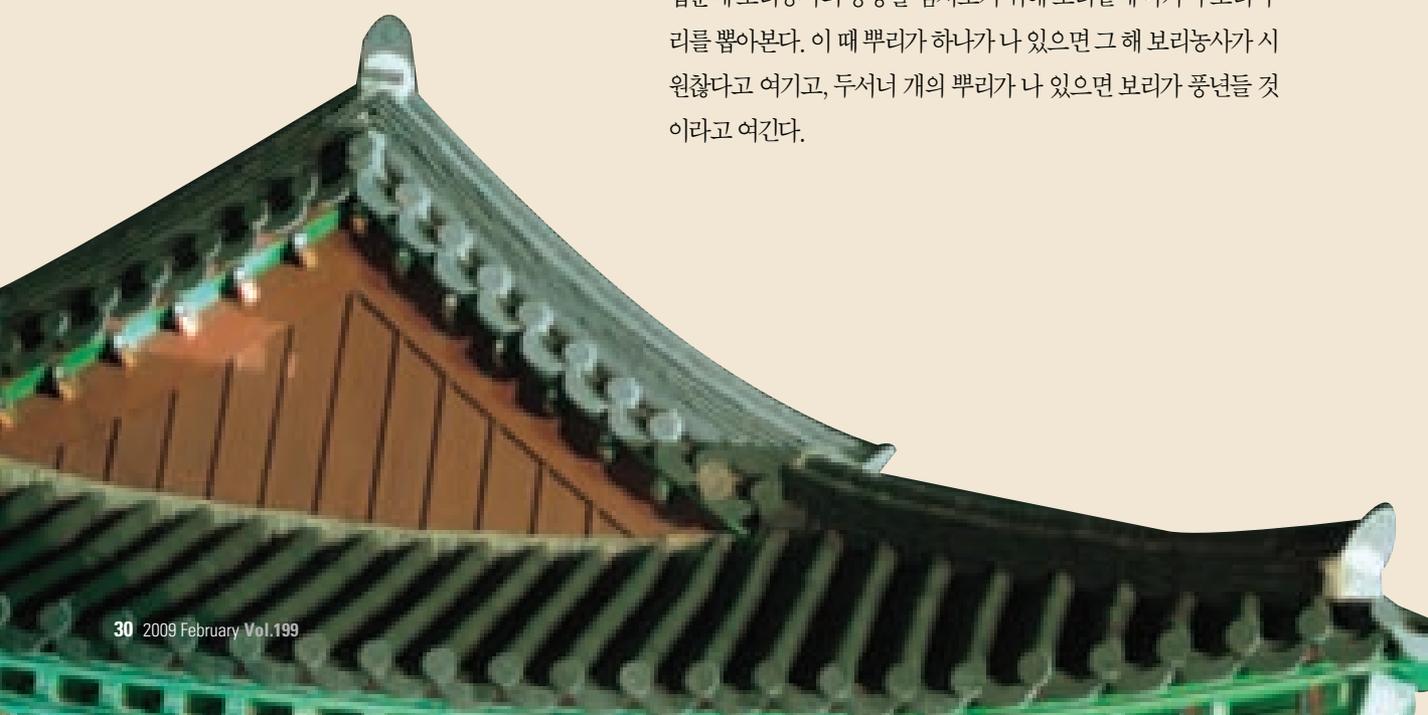
편집자 주

입춘첩 붙이기

입춘날 시를 맞추어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세재기축만사여의(歲在己丑萬事如意) 등의 글귀를 써 두었다가 부엌·방문·대문, 혹은 대들보 등에 붙인다.

보리뿌리 보기

입춘에 보리농사의 풍흉을 짐쳐보기 위해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뿌리를 뽑아본다. 이 때 뿌리가 하나거나 있으면 그 해 보리농사가 시원찮다고 여기고, 두서너 개의 뿌리가 나 있으면 보리가 풍년될 것이라고 여긴다.





오곡밥 먹기

팥·콩·수수·보리·찰쌀 등을 섞어 밥을 해서 갖은 나물을 반찬으로 밥을 먹는다. 주로 취나물, 고사리,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고구마 순 등 갈무리해 두었던 나물을 물에 불려서 기름을 두르고 볶아서 먹는다.

열 나흘날 저녁밥은 다른 날 보다 일찍 먹어야 좋다. 이날 밥을 늦게 먹으면 매일 늦게 먹게 된다고 하여 서둘러 마련한다. 오곡밥은 나물과 함께 성주, 조왕, 터줏대감에게 바치는데, 바치고 난 음식은 거리 신에게 바치기도 한다. 밤이 되면 마을 아이들은 오곡밥을 훔쳐 먹는다.

잠 안자기

열 나흘날 저녁에 잠을 자면 눈썹이 쏜다고 하여 그날 저녁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마을 남자들은 사랑방에 모여 노는데 자는 사람이 있으면 눈썹이 쏜다고 하여 놀린다. 또 이날 밤에는 집안이 맑으라고 등잔에 기름을 넣고 밤을 밝힌다.

쥐불놀이

열 나흘날 저녁에 아이들은 솔을 따다가 구멍을 뚫은 강통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휘휘 내두르며 쥐불놀이를 한다. 강통에는 마른 나무, 솔방울, 마른 닭똥, 고무신, 송진 등을 넣고 돌리면 불꽃이 잘 타오른다.

강통이 없던 시절에는 대나무를 잘라서 통을 만들어 사용했다. 만든 강통을 돌리며 마을 청년들이 인근 마을에 다가가는데 이때 물러서는 쪽이 지는 것이다.

신발 감추기

열 나흘날 밤에는 잠 자기 전에 신을 감춘다. 만일 신을 감추지 않으면 귀신이 찾아와 자신에 맞는 것을 신고 가는데, 귀신의 발에 맞는 신의 임지는 죽게 된다고 여겼다.

달맞이

정월 대보름날 밤 달맞이를 한다. 달을 보고 한 해 농사를 짐치기도 하는데 구름이 끼어서 달이 잘 보이지 않으면 개가 계수나무를 집어 먹었다고 하여 그 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래서 달맞이를 하며 개가 계수나무를 집어먹지 못하게 감시하기도 한다.



용알 뜨기

보름날 새벽 우물에 비친 달을 다른 사람들이 떠가기 전에 먼저 떠오면 그 해 부자가 된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일찍 우물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에 모인다고 한다. 이 물로 보름밥을 해 먹는다.

부럼 깨기

대보름 아침 동이 트기 전에 호도, 밤, 잣 등을 ‘딱’ 소리가 나도록 깨물어 대문 밖으로 힘껏 집어 던진다. 부럼을 깨뜨리면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지 않고 피부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여겼다.

귀밝이술 마시기

귀밝이술은 귀가 밝아진다고 해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마시는데 아이들도 마신다. 귀밝이술을 마시면 일 년 내내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고 여겼다. 귀밝이술은 집에서 만든 것으로 용수로 가장 마지막에 걸러낸 맑은 술이다.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에 남의 집에 가서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이 때 대답을 하면 먼저 ‘먼저더위’ 라고 외친다. 이렇게 하여 그 해에 탈 더위를 친구에게 파는 것이다. 더위를 사지 않으려면 친구가 부를 때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먼저더위’ 라고 하면 된다.

소 밥 주기

보름날 아침밥을 먹기 전에 곡식을 까부르는 키에 밥과 나물을 담아 소에게 준다. 이 때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여겼다.

나무 아홉 짐 하기

보름날 아침밥은 다른 날 보다 일찍 먹는다. 이 날 밥을 늦게 먹으면 여름 내내 밥이 늦어진다고 하여 서두른다. ‘보름밥을 늦게 먹으면 일꾼들 밥해 줄 때 늦다’ 고도 한다. 또한 보름날은 나무 아홉 짐을 하고 보름밥도 아홉 번 먹는데, 이는 그만큼 밥도 많이 먹고 일도 많이 하라는 뜻이다.

이 자료는 ‘청양의 산촌민속 (청양문화원 발행)’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기획

한국의 제의례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의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제의례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祭儀禮



(14) 초헌(初獻) | 주인이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 전주(奠酒)

- 주인이 향안 앞에 가서 신위를 향해 읊하고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고위 잔반을 집어 두 손으로 받들고 향안 앞 서쪽에서 동향해 선다.
- 동집사가 주가 앞으로 가서 주전자를 들고 향안 앞 동쪽에 서 서향해 선다.
- 동집사는 주인이 받들고 선 고위 잔반에 술을 가득 따른다.
- 주인은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왼 자리에 고위 잔반을 올린다.
- 주인은 제상의 동쪽으로 옮겨 비위 잔반을 집어 받들고 향안 앞 서쪽에서 동향해 선다.
- 주인이 동집사의 뒤로 다니지 않고 앞으로 다니도록 동집사는 뒤로 한 발 물러선다.
- 동집사는 술을 가득 따르고 주전자를 왼 자리에 놓고 물러난다.
- 주인은 제상의 동쪽으로 가서 왼 자리에 비위 잔반을 올린다.
- 주인은 향안 앞으로 와서 북향해 선다.

◎ 췌주(祭酒)

- 서집사는 고위 잔반을 집어서 받들고 향안 앞 주인의 왼쪽에서 동향해 서고 동집사는 비위 잔반을 집어서 받들고 향안 앞 주인의 오른쪽에서 서향해 선다. 언제든지 고위 잔반이 먼저 들려야 한다.
- 주인과 두 집사가 함께 꿇어앉는다.
- 서집사는 고위 잔반을 주인에게 주고 주인은 고위 잔반을 받아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집어 모사에 조금씩 3번 지우고 잔대에 흘린 술을 퇴주기에 쏟은 다음 잔을 잔대에 올려 놓고 잔반을 서집사에게 준다.(췌주는 '제사 지낸다'는 뜻으로 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상징한다.)
- 이어서 동집사의 비위 잔반을 그렇게 췌주한다.
- 이때 잔반을 향로 위에서 돌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향로는 분향해 청신하려고 있는 것이지 술잔을 돌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동서집사는 일어나서 잔반을 왼 자리에 올리고 물러난다. 언제든지 고위 잔반이 먼저 놓여야 한다.

◎ 전적(奠炙)

- 주인은 동서집사가 고비위 잔반을 원자리에 올린 다음에 일어난다.
- 동서집사가 협력해 육적을 정한 자리에 올리고 이어서 적소금을 올린 다음 물러난다.

◎ 계반개(啓飯蓋)

- 서집사는 고위 반, 고위 갹, 고위 면, 비위 면의 덮개를 벗겨 면 그릇의 남쪽에 놓고, 동집사는 비위 반, 비위 갹의 덮개를 벗겨 각 그릇의 남쪽에 놓는다. 탕의 덮개도 모두 벗긴다.

◎ 독축(讀祝)

- 독축자가 주인의 왼쪽으로 나가서 향안 위의 축판을 들고 신위를 향해 선다.
- 주인 이하 모두가 꿇어앉는다.
- 독축자가 축문을 다 읽고 축판을 소탁 위의 강신잔반 서쪽에 놓는다.(축문서식 참고)
- 주인 이하 모두가 엎드려 제의 대상을 추모하는 묵념을 한다. (고례에는 곡(哭)을 했다)
- 모두 일어난다. 주인이 제일 나중에 일어난다.
- 독축자는 일어나 제자리로 가고 주인은 읊하고 두 번 절한다.

◎ 퇴주(退酒)

- 주인은 주가 위의 퇴주기를 두 손으로 들고 향안 앞에 북향해 선다.
- 서집사는 고위 잔반 동집사는 비위 잔반을 집어다가 퇴주기에 비우고 왼 자리에 잔반을 올려놓는다.(잔대에 흘린 술도 모두 비운다.)
- 주인은 퇴주기를 주가 위 왼 자리에 놓는다.

◎ 퇴적·철적(退炙·撤炙)

- 동서집사는 협력해 육적을 퇴해 대상으로 옮긴다. 제상에서 내리는 것을 퇴한다고 하고 대상이나 밖으로 치우는 것을 철한다고 한다.
- 주인과 두 집사는 제자리로 물러난다.

(15) 아헌(亞獻) | 주부가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이때의 집사는 여자가 된다. 부득이 해서 주부가 아헌을 못할 때는 주인 다음 차례의 사람이 하는데 남자가 아헌하면 집사도 남자여야 한다. (제의의 주부 역할은 주부가 없으면 아헌자가 행한다.)

◎ 전적에 어적을 올리고 ◎ 독축 ◎ 계반개 절차는 없고 ◎ 채주 ◎ 아헌자의 절(주부는 4배) ◎ 퇴주 ◎ 철적의 절차는 초헌 때와 같다.

(16) 종헌(終獻) | 참례자 중 다른 어른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일이다. 모든 절차는 아헌과 같은데 다만 ◎ 전적에 계적을 올리고 ◎ 퇴주 ◎ 철적을 하지 않는다. 제의에 술을 세 번 올리는 까닭은 삼재(天地人 三才) 정신에 의하여 세 번은 전부이므로 주인과 주부 손님이 한 번씩 석잔을 올리는 것이다.

(17) 유식(脩食) | 조상에게 많이 흠향하기(집수시기)를 권하는 절차이다.
· 주인은 향안 앞에 나아가 북향해 읊하고 주부는 주인의 왼쪽에 서서 북향해 읊을 곱혀 예를 표한다.

◎ 첨작(添酌)
· 주인은 주전자를 들고 고위 잔반 비위 잔반 순으로 채주해 축난 잔에 술을 가득 채워 따르고 주전자를 원 자리에 두고 향안 앞에 북향해 선다.

◎ 삼시정저(扱匙正箸)
· 주부는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시접의 숟가락을 고위 메에 숟가락 앞이 동쪽을 향하게 깊이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골라 시접 위의 북쪽에 손잡이가 서쪽으로 되게 걸친다.
· 이어서 제상의 동쪽으로 옮겨 비위의 시저도 그렇게 (젓가락은 고위 젓가락의 남쪽)하고 주인의 왼쪽 옆에 북향해 선다.
· 주인은 재배, 주부는 4배하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시저로 그릇바닥을 쿵쿵 굴리지 않는다.)

(18) 함문(闔門) | 조상이 마음 놓고 집수시도록 자리를 비우는 절차이다.
· 주인 주부 이하 모두가 밖으로 나간다. 독축자가 제일 나중에 나가면서 문을 닫는다. 만일 문을 닫을 수 없는 곳이면 병풍으로 둘러쳐도 된다.
· 주인 이하 남자는 차례대로 문의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주부 이하 여자는 차례대로 문의 서쪽에서 동향해 선다.
· 노약자(老弱者)는 다른 방에서 쉴 수 있다.
· 7-8분간(九食頃 · 아홉 숟가락 먹는 시간) 공손히 서 있다.

(19) 계문(啓門)
· 독축자가 문 앞에서 3번 '어흠 어흠 어흠' 인기척을 내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축문을 읽어 신의 귀에 익은 음성으로 인기척을 내는 것이다.)
· 주인 이하 모두 들어가서 제자리에 선다.

(20) 진숙수(進熟水) | 물을 올리는 절차이다.
· 주인과 주부는 향안 앞에 나가서 북향해 읊 · 굴 신례를 한다.
· 주인은 남자 집사의 협조를 받아 고위 갠과 비위 갠의 덮개를 덮어 퇴하고, 주부는 여자 집사의 협조를 받아 고위 숙수와 비위 숙수를 올린다.

※ 숙사소경(肅侯少頃): 5-6분간 엄숙히 기다린다.
(21) 낙시저(落匙箸)
· 주부는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고위 메에서 숟가락을 뽑아 시접에 담고 고위 젓가락을 내려 시접에 담는다.
· 이어서 제상의 동쪽으로 옮겨 비위의 시저도 그렇게 한다.
· 이때 시저로 시접바닥을 굴러거나 밥을 떠서 숙수(송농)에 말거나 젓가락을 다른 제수 위에 올려놓는 일은 하지 않는다.

● 시저를 원래대로 시접에 담은 일을 낙시저라 하면 조상의 시저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어 죄송하다. 하시저(下匙箸)나 철시저(撤匙箸)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다. 삼시정저(扱匙正箸)를 했지 상시저(上匙箸)를 한 일이 없으므로 하시저는 당치 않고, 시저를 제상 위에 있는 시접에 담아 놓는데 밖으로 치운다는 철시저도 옳지 않다. 원래 낙(落)자는 이루다(成)는 의미가 있어 공사가 다 되는 것을 낙성(落成)이라 한다. 그래서 낙시저는 '다 잡수셨다'는 의미이다.

(22) 함반개(闔飯蓋) | 집사는 모든 덮개를 덮는다.
※ 진다(進茶) | 만일 차를 올리려면 이때 잔반을 한쪽으로 밀고 그 자리에 차를 올리고 5-6분간 다시 숙사소경(肅侯少頃)한다. 송농을 올리는 것과 차를 올리는 것은 다르다.

(23) 사신(辭神) | 주인 이하 남자는 재배, 주부 이하 여자는 4배한다.

(24) 납주(納主)
· 신주는 봉주취위(奉主就位)할 때와 반대로 가묘에 모신다.
· 사신이라면 원자리에 모신다.

(25) 분축(焚祝) | 독축자는 지방과 축문을 태워 재를 향로에 담는다.

(26) 철찬(撤饌) | 제상 위의 제수를 내린다.

(27) 음복(飲福) | 참례한 자손들이 제수를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28) 철기구(撤器具) | 모든 제의 기구를 원 자리로 치운다.

● 독축자가 초헌자에게 "제사를 잘 지냈다"고 큰소리로 고하는 고리성(告利成)과 초헌자가 향안에 서향해 앉아서 술 한잔과 안주 하나를 먹어 음복하는 준(饌)은 매 계절의 가운데 달에 지내는 시제(時祭)에서만 행했었다.



세계화 시대에 문화원의 역할

서울 속에 일본문화원과 종로문화원

문화원과 그 역할

왜 문화원이라고 할까? 문명원(文明院)이라고 하면 어떨까?

어쨌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이상적인 행위가 문화라고 한다면 그 도구를 만드는 행위를 문명이라고 형성수설해 본다. 후자는 현실적이고 전자는 이

상적이라고 양분해 본다. 재차 문화는 정신적 소산이라고 격을 높여 본다. 그렇다면 격을 낮추면 문명이란 말인가.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면 예술을 떠올린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가끔 종교와 정치이야기는 하지말자고 한다. 왜! 끝에 가선 싸우니까. 그리고 문화이야기만 하자고 한다. 그만큼 어떤 문화든지 문화의 격은 정치와 종교보다는 상위개념인 듯하다. 아니면, 차라리「먼로」이야기가 낫다고 한다. 실제 공감이가기도 한다. 웬지 문명보다 문화가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논리적 관점상, 여기서는 문화이야기만 강조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렇다.「색(色:sex)보다 더 좋은 문화(文化)」라고. 이것은 실제로 출판사와 계약금까지 받고 출판사의 경제적 여건으로 지금까지 보류(해약)한 바 있다. 그러나 제목도 내용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견적 양서가 될 수도 있겠다.

여하튼, 문화는 자연에 흠을 내는 행위와 자연을 아끼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흠집과 아낌의 균형」을 주든가 또는 상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결과는 상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용되는 문화의 정의는 서로를 배려하는 공생적 인간행위로 국한하고 싶다. 왜냐하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일정기간 잠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 즉 테러(Terror)가 발생한다. - 상대를 배려하지 않을 때 그

특·별·기·고



현영조
건축가 · 이학박사
서울환경계획연구소 소장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결과로 인류가 원하는 행복과 평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단일문화권이 되었을 때 정말 평화와 행복이 보장될까? 강자(정치, 군사, 경제, 교육, 과학)의 힘에 의하여 약육강식적 평준화가 되었을 때 얼마나 재미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필자는 전후좌우로 머리를 흔들고 싶어진다. 더구나 영어만 고집하는 현실(우리는 한자문화권인데)에서 세계가 영어문화로 일색화 된다면 무한한 삶의 가치(다언어, 다종교, 다문화)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인류모두가 기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영어에도 사투리가 있듯이 언어의 다양성은 지역성이기도 하다. 지역적 문화에서 세계적 문화로, 세계화에서 다시 지역화로 피드백(Feedback)논리에서 소수의 다양한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인류의 삶이 재미가 없다면 정말 보람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인간의 자존이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으로 유지·관리되는 사회가 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구호일뿐이다. 왜냐하면, 과학의 무한대적 발달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드디어 자연의 재앙과 더불어 인류의 멸망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만약,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만 있다면 지구생태계는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울 것이다.

인류의 황포가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고, 미생물의 작은 단위생활권(Biotope)까지 위협하는 현실에서 인류가 원하는 행복과 평화는 요원하다. 이러한 경우에 문화란 먹이찾기 생태계에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이 새로운 의식전환에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담은 그릇(공간)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원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즉, 남을 배려하는 문화를 담은 공간을 금세기의 문화원이라고 전제하면서 세계화 시대의 문화원 역할을 사례와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제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공보문화원(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니동 1148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행한 일본의 <새소식>(2009. January ‘Volume. 448)에 의하면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의 새해인사에서 “한일관계의 토대는 시민차원의 교류입니다. 사람왕래가 지난해 10월로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말에는 원화약세도 있고 하여 일본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을 거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일의 민간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일대학생교류사업과 워킹홀리데이제도 참가자의 틀을 두 배로 늘리는 사업 등도 실시됩니다. 양국간의 지방교류도 중요합니다. 이에 아직 가보지 못한 전라남도와 충청북도를 조속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지난 해 9월 서울시청 앞과 청계광장에서 거행됐던 ‘한일축제 한마당’입니다. 양국이 합동으로 실시한 축제 한마당에는 이틀 동안 10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어우러져 춤추고 노래하던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멋지고 좋은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한·일·중 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환경운동, 여러 한일관계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다카하시 다에코(高橋妙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의 새해 인사말 중 ‘체험적 한일문화교류사’란...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전별전 ‘요시노가리(吉野ヶ里), 일본속의 고대한국’ 개막식에 초대되어 갔었는데, 거기서 나는 일본열도와 한반도 사이에는 이천년도 더 전부터 교류가 있었음을 전시유물을 보며 재인식했습니다.”라고 회고한다. 이와 같이 문화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문화원이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계인과 지역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철학(史·文·哲)을 담은 건축적 공간으로서 문화원의 지역화와 세계화의 재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일

본문화원인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자국의 전통문화(전통음악, 전통무용)와 현대문화(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안배하여 공연, 전시, 관광, 체험, 강연, 독서, 교육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한·일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문화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한·일관계에서 「조선통신사의 일본에서의 외교」적 교류를 주도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1668~1755)의 「성신의 교류(誠信の交わり)」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자주 소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종로문화원과 서울의 역사 문화유산

종로문화원은 서울특별시 사간동 122-4에 위치하고 있다. 월간 종로문화 36호 2009년 2월호에 의하면 종로문화원의 소재지를 알리는 주소(뒷표지) 두군데(2개소)에 서울특별시를 모두 서울시 종로구(종로문화원 안내 주소), 서울시 종로구(월간 종로문화의 종로문화원사무실의 주소)라고 적혀있다. 어디를 보나 서울특별시를 서울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다행히 서울 社稷壇正門(보물 제177호)의 소재지를 알리는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라고 표기되어 있다. 일본문화원의 경우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공보문화원」의 주소는 '(우)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라고 적혀있다. (일본의 새소식. 앞표지)

한국과 일본의 주소표기를 정리하면

한국의 경우: 우편번호 없이, 서울시 종로구

일본의 경우: (우)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이러한 작은 지적은 후진적인 증로에서 선진적인 증로로 가는 시작이다.

月刊 <종로문화>(2009년 2월)에 '문화1등구 종로구는

언제나 종로문화원이 함께 합니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종로문화원은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예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p3.상단)라고 비교적 큰 글씨로 소개되어 있다.

한편, 종로문화원장 심재득 원장의 신년사에서 "종로문화원은 열악한 환경에도 3.1만세의 날 종로거리 축제, 청소년 & 주부백일장, 대학로 청소년 축제, 국악로 축제, 월간 종로문화 발간, 문화탐방, 창덕궁 향토사료집 발간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사료집 발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 심기일전하며 종로의 문화유산, 역사, 예술, 공연 등을 알리며, 종로지역의 문화를 문화1등구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발굴 보전하여 창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국은 역사상 수많은 침입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흡수하고, 동화하며 오늘의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그 옛날 몽골의 침입과 임진왜란, 일제시대 등을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끈기와 문화적 저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오는 대한민국 제일도시 서울특별시 중에서도 제일문화구인 종로구의 자존심이다. 이곳에 원적(신문로2가:1945년)을 두고 「세계의 건축과 도시환경(1997년)」과 「한국의 전통건축 명가의 미(2005년)」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와 논문 그리고 칼럼(600여편)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선의 옛 수도인 「한양(漢陽)의 명당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특히, 환경과 문화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에 연구소를 마련하고 환경의 중요성과 문화의 가치성을 연계하지 않으면, 경제에 성공한다 해도 선진국은 될 수 없다고 단언한 적도 있다. 필자는 종로구를 예술화, 예술을 생활화로 시작하여, 한국의 미래는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복원, 관광자원화하였을 때 세련된 국가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즉, 세련된 한국(Refined Korea)이 된다고 확신한다.

수원문화원

기축년 소원기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수원문화원(원장 유병헌)은 2월 8일 오후 1시부터 화성 행궁 광장에서 수원시 후원으로 수원시민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축년 소원기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을 열고 옷놀이와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 개인종목과 동별 대항 및 외국인 대항으로 민속놀이 체험 행사와 탁본 찍기, 제기·연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을 비롯해서 부럼 깨기,



떡메치기, 오곡밥 나눠먹기 등 나눔 행사에 이어 준비된 소지에 시민들의 소원을 적고 달집을 제작, 월출시간에 맞춰 달집을 태우는 소원 비는 기원행사를 가졌다.

이 밖에도 경기민요, 풍물공연, 전통무용 공연, 각설이타령, 강강술래 등 전통문화공연과 민속 소개 및 길마제 줄다리기와 수원대유평두레 시연 등으로 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을 펼쳤다.

동대문문화원

‘MBC 어르신 가요제’ 은상 수상

동대문문화원(원장 김영섭)은 실버세대들이 자신과 지역의 문화 자산을 발굴, 개발하여 문화를 매개로 다른 세대와 소통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일자리(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시행하고 있는 실버중창단 ‘왕언니 클럽’이 MBC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출연, 은상을 수상하였다.

당당하게 인생을 즐기는 노년층의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80분간 방영한 바 있는 설날 특집 ‘MBC 2009 어르신 가요제’에 출연, 60세 이상 전국 180여개 팀이 예심을 거쳐 12개 팀이 겨룬 선발 출연에서 왕언니 클럽은 ‘답십리 원더맘’ 팀을 구성, 10대, 20대 대표적 아이돌 그룹인 원더걸스의 대뷔곡인 ‘Tell Me’의 안무와 노래를 완벽하게 구사함으로써 실력을 인정받았다.

파주문화원

2009 통일기원 임진강 민속축제

파주문화원(원장 민태승)은 2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 민속축제인 '통일기원' 2009임진강민속축제를 펼쳤다.



파주시 주최, 파주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날 축제는 우리 민속 놀이의 재연과 참여를 통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한다는 취지아래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아 연 날리기를 중심으로 팽이치기, 널뛰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의 체험과 함께 우리 민족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담은 짚풀공예품 전시회 관람과 짚으로 새끼 꼬기, 부채 만들기, 새집 만들기 등의 체험을 통해 함께 놀고, 배우며, 나누는 한민족공동체 어울림의

장으로 축제가 무르익어갔다.

한편 참가비 1천원의 사전 신청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높이 날리기 경연에서 접수된 참가비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결핵약을 지원하는데 쓰여 진다고 한다.

시흥문화원

2009 정월대보름축제

시흥문화원(원장 정상중)은 2월 7일 오후 2시부터 포동운동장에서 시흥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내는 화합의 잔치인 2009년도 정월대보름축제를 가졌다.

이날 제기 만들기와 연 만들기, 소원지 쓰기, 다듬이질, 투호 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널뛰기, 새끼 꼬기, 떡메치기 등 체험 마당을 가진데 이어, 연날리기와 가마니 짜기, 명석 짜기 등의 시연과 풍물동아리 공연이 있었으며, 동별 대항 윷놀이대회와 용머리 엮기, 짚신삼기, 달집태우기, 오곡밥과 귀밝이술, 부럼깨기 등 대보름 음식맛보기 등으로 행사가 이어졌다.

진천문화원

2009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진천문화원(원장 남명수)은 2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군민회관과 백곡천 둔치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민속놀이와





세시풍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정월 대보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체험으로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군민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군민회관 앞에서부터 경찰서와 중앙시장, 전화국, 백곡천 둔치 행사장에 이르는 코스로 풍물패를 앞세운 풍년길놀이를 시작으로 2009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 대항 윷놀이대회는 군내 기관, 사회단체 및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참가자격이 주어졌으며 연 날리기와 지신밟기, 사물놀이, 읍 면대항 줄다리기에 이어 달집제 올리기, 쥐불놀이, 부럼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공연이 펼쳐졌다.

유성문화원

2009 유성 정월대보름제

유성문화원(원장 한근수)은 2월 9일 오후 3시부터 유성구청 앞 어은교 옆 둔치에서 유성구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가 후원하는 2009 유성 정월대보름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세시풍속의 전통을 잇고 지역민의 새해 안녕과 행운을 기리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문화원 사물반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장구 및 민요, 우리춤 체조, 판소리 공연에 이어 한근수 원장의 인사말과 내빈 축사 등 공식 행사가 있는 다음 윷놀이, 굴렁쇠 돌리기, 널뛰기, 투호놀이, 전통연 날리기, 사물놀이, 사물반과 전통무용반의 소고춤과 강강술래,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웰빙 부럼 깨기, 떡메치기, 솟대 만들기, 새끼 꼬기 체험, 찰흙으로 소캐릭터 만들기, 짚풀로 달걀꾸러미 만들기, 줄다리기와 제기차기 등으로 대보름제를 펼쳤다.



춘천문화원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009

춘천문화원(원장 이대근)은 2월 9일 오후 1시부터 의암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춘천시 후원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009를 가졌다.



‘달빛에서 희망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의 축제는 널뛰기,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민요, 탈춤, 사물놀이, 택견 등 민속놀이마당에 이어 춤으로 여는 2009와 소리로 여는 2009, B-boy와 타악 퍼포먼스 등의 무대공연, 햇불행진 및 다리 밟기, 기축년 장승세우기, 달맞이 고사, ‘소망글귀’ 점화, 달집태우기, 희망의 불화살을 쏘다, 쥐불놀이, 2009개의 소망등 달기의 대보름 행사 및 부대행사로 가훈 써주기, 부럼 깨기, 대보름음식 시식회, 떡매치기, 우리 차 시음회, 감자·고구마·양미리 구워먹기, 열두 띠 동물(12지신) 목관 짚기, 천체망원경으로 달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밤이 늦도록 대보름 행사가 이어졌다.

삼척문화원

제37회 삼척정월대보름제





삼척문화원(원장 장세훈)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동안 엑스포광장에서 삼척시 후원으로 제37회 삼척 정월대보름제를 가졌다.

새해 소망길놀이와 불꽃놀이 등으로 전야제 행사에 이어 술비놀이, 속닥기 줄다리기, 중기줄다리기, 대기줄다리기 등 문화재 행사와 두타산 산신모시기, 천신제, 지신제, 해신제 등의 제례행사, 살대세우기, 별신굿판, 달집태우기, 망월놀이, 옷놀이, 연 날리기, 민속장기대회, 팔씨름대회와 가족참여형 체험행사인 부대행사로 신주(神酒)빚기, 귀밝이술 마시기, 정월대보름 부럼깨물기, 가족소원 쓰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렸다.

2월 8일 오후 3시부터 엑스포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사투리구연대회를 가졌는데 구수하고 정감 있는 삼척사투리를 보존하고 향토문화의 맥을 이어갈 주역을 찾는다는 취지로 열렸다.

‘삼척사투리 ‘고마우타하던지 마키오예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다 함께 모여봅시다.

증평문화원

2009 수살제, 정월대보름민속잔치

증평문화원(원장 최건성)은 2월 8일 오후 1시부터 남차3리 수살거리에서의 수살제와 2월 9일 오후 2시부터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정월대보름 민속잔치를 열고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세시풍속놀이인 옷놀이, 제기차기, 쥐불놀이 등 잊혀져 가는 민속놀이 문화를 전승, 보존하여 군민의 화합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옛 청안현 남연지역의 보름놀이인 수살제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옛 풍습 그대로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이틀간에 걸쳐 민속잔치를 펼쳤다.

‘수살제(水殺祭)

해마다 여름이면 비가 많이 내리어서 가옥이나 농토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남차3리 수살거리에서 정월대보름 하루 전날인 열 나흘날 저녁에 올 여름에는 비 피해를 입지 않게 해 달라는 제사를 지낸다.

김해문화원

제15회 정월대보름민속행사

김해문화원(원장 한교회)은 2월 9일 오후 2시부터 외동터미널 옆 외동축구장에서 제15회 정월대보름민속행사를 열고 민속놀이 경연 및 달집태우기 등으로 대보름민속행사를 가졌다. 1, 2, 3부로 나누어 치른 이날 행사에서 널뛰기, 제기차기, 옷놀이, 차치기, 팔씨름, 연 날리기 등으로 각 시민단체와 동호인 대항 민속놀이에 이어 제2부 어울마당에서는 부럼 깨기, 귀밝이술 마시기, 국악공연과 김해오광대 공연, 고전무용 공연이 있었으며 제3부에서는 고유제와 성주풀이,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농악공연, 쥐불놀이 등 다양한 공연으로 민속행사를 가졌다.

진주문화원

기축년 정월대보름행사

진주문화원(원장 이병찬)은 2월 9일 오후 1시부터 포시즌 및 남강둔치에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조상의 슬기와 얼이 배여 있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장승 깎아 세우기를 비롯해서 먹거리 마당을 펼쳐 지역민들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축년 정월대보름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승 만들어세우기 및 고사로 액막이행사에 이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마당과 부럼 깨기, 귀밝이술마시기, 엿치기 등의 먹거리 마당, 풍물놀이와 민속무용 등의 민속공연마당, 달맞이 송액영복 고사와 달집태우기, 대동놀이, 쥐불놀이를 끝으로 대보름 행사를 마쳤다.



장흥문화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한마당

장흥문화원(원장 김기홍)은 2월 7일 오후 3시부터 장흥읍 탐진강변 장흥교 아래 주차장에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한마당을 열었다. 조상의 슬기와 지혜가 깃든 세시풍속놀이를 통해 옛 추억에 잠겨보면서 달집태우기로 묵은 액운을 태워 보내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기축년 소원성취를 바라는 뜻에서 마련한 민속놀이 한마당에서는 투호놀이와 제기차기, 연 날리기, 팽이치기에 이어 부대행사로 농악 및 풍물공연과 달집제사, 달집에 소원 써서 매달기, 달집태우기, 가훈 써주기, 쥐불놀이 시연이 펼쳐졌다.



하동문화원

제24회 정월대보름민속축제

하동문화원(원장 정연가)은 2월 9일 오후 4시부터 하동 송림 백사장과 섬진교 일대에서 제24회 정월대보름민속축제를 가졌다.

기축년 새해 내외 군민과 남해안시대 중심도시 하동의 번영,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마련한 대보름 민속축제에서 많은 군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로 민속놀이 연 만들기 체험 및 날리기, 투호대회, 옷놀이, 제기차기, 부럼 깨기에 이어 달맞이 행사로 소망기원 제례와 달집태우기, 농악놀이와 답교놀이를 기축년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했다.



이천문화원

기축년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이천문화원(원장 이상구)은 2월 8일 오후 3시부터 밤 8시까지 설봉공원 동문광장에서 기축년 정월대보름민속축제를 펼쳤다.

이날 참가 어린이들에게 연과 제기를 선착순 무료로 제공하는 가운데 열린 축제에서 연 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줄넘기, 투호놀이, 옷놀이 등 민속놀이와 망월대 만들기, 깃발 만들기, 소원글쓰기로 대보름 풍년기원제와 달맞이 행사가 열렸다.



낙동문화원

제20회 정월대보름 낙동민속달맞이

부산 낙동문화원(원장 백이성)은 2월 9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변 덕천배수장 앞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과 북구의회, 북부경찰서 후원으로 제20회 정월대보름 낙동민속달맞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북구풍물연합회와 낙동민속보존회 합동으로 구포시장 쌈지공원을 출발하여 철길 굴다리를 거쳐 행사장에 이르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문화원 민요반의 민요공연과 율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연 날리기 등 민속놀이를 비롯해서 교방무, 한량무, 모듬북, 지신밟기 공연에 이어 낙동전통예술단의 월령기원 살풀이와 월령기원제를 지내고, 달집태우기, 민요반의 선창에 따라 강강술래로 달집돌이가 이어졌으며, 달맞이 참가



자 전원이 함께하는 다리밟기로 달맞이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관내 인덕식품 및 무궁화마트의 협찬과 대한적십자사 사회 북구지부협의회 무료급식 봉사지원으로 떡국 무료급식과 고구마·감자구워먹기 체험 등 풍성한 먹거리도 있었다.

태안문화원

2009 범군민 중앙대제

태안문화원(원장 명수남)은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태안읍사무소 앞 경이정에서 태안군과 태안군이장단협의회, 태안읍, 태안읍새마을부녀회 후원으로 2009 범군민 중앙대제를 가졌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태안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범군민중앙대제'는 전통 민속놀이 계승과 태안군을 대표하는 민속행사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제1회 화합율놀이' '소원 소지걸기' 등의 민속놀이 행사로 군민화합의 한마당을 열었다.



구미문화원

2009 구미 정월대보름축제

구미문화원(원장 김교승)은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금오산 잔디밭에서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금오대제'를 시작으로 지산앞뜰에서 8개단체가 참여하는 구미풍물경연대회로 흥겨운 축제의 마당을 펼친데 이어 오후 1시부터 읍면동 대향으로 개최된 줄다리기, 옷놀이, 투호놀이를 비롯하여 세시음식나눠먹기 등의 행사가 열렸다.

저녁 6시부터 지산앞뜰 지산동사무소 앞에서 청솔가지 등으로 만들어진 달집에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현수막과 소원문을 달고 낙동강과 경제살리기를 염원하는 달집을 태우면서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달서문화원

제7회 달배달맞이 축제

대구 달서문화원(원장 박재진)은 2월 9일 오후 2시부터 달서구 도원동 월광수변공원에서 대구시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구의회와 월배지역발전협의회, 계명대학교 한학촌 후원으로 제7회 달배달맞이 길놀이와 모듬북, Bboy 공연, 삼태기 민요 메들리에 이어 기원제와 함께 달집태우기, 체험마당으로 제기차기왕 선발과 연 만들기, 솟대 만들기, 장승 깎기 시연과 대보름 음식장터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달맞이축제를 가졌다.



성남문화원

제8회 성남시 정월대보름축제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분당 중앙공원 광장에서 <제8회, 성남시 정월 대보름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회의 '오리뜰 두레 農樂' 공연과 성남시민속연보존회의 '창작 연 시범'을 시작으로 고흥길 국회의원, 남선우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 및 여러 기관단체장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연날리기 시연이 이어졌으며 떡메치기, 엮치기, 소원글쓰기 등 다채로운 특별행사들을 선보였다.



별써 8회를 맞이한 <정월 대보름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시민 민속 대항' 과 가오리 연 700개를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순서도 마련됐으며, 모든 시민이 함께 부름을 나눌 수 있는 '부름박 깨기' 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와 다양한 민속놀이를 통해 사라져가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기 위해 1,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이날 민속대항에서 우수한 34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상품권이 수여됐다.

김제문화원

대보름맞이 '연' 날리기대회

김제문화원(원장 정주현)은 2월 9일 오후 2시부터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소재 벽골제 현지 제방에서 연과 열레를 김제문화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관내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대보름 '연' 날리기대회를 개최, 평일인데도 2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반부 장원에 최가호 씨가, 학생부 장원에는 전통한복을 차려 입고 참가한 김산초등학교 1년 오민택 아동이 각각 차지했다.

사상문화원

제10회 사상전통달집놀이

부산 사상문화원(원장 김진홍)은 2월 9일 오후 2시부터 삼락강변공원 입구 사이클경기장에서 사상구가 주최하는 제10회 사상전통달집놀이를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각급 단체 풍물패가 참가한 가운데 사상역을 출발, 사상초등학교와 한신아파트를 거쳐 행사장에 이르는 가두 길놀이에 이어 각 동 주민센터 대항 윷놀이와 제기차기의 민속경연대회와 연 날리기, 투호놀이, 호두까기, 콩 볶아먹기, 떡메치기 등 민속놀이를 위시해서 Bboy & 타악 퍼포먼스, 민요경창, 고전무용 등 축하마당, 소망 등 만들기 체험 및 지신밟기에 이어 월령기원제과 달집내우기, 불꽃놀이, 쥐불놀이로 제10회 사상전통 달집놀이의 막을 내렸다.

온양문화원

정월대보름민속놀이한마당

온양문화원(원장 김시겸)은 2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온양 신정호국민관광단지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조상의 얼과 민족의 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정월대보름민속놀이한마당을 펼쳤다.

이날 참가팀이 조별 토너먼트 경기방식으로 진행된 윷놀이와 제기차기, 연 날리기, 엿치기 등 민속놀이로 주민단합 한마당을 열고 종목별 우승자를 가려 시상하는 한편 참가자 모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 민속놀이 한마당을 열었다.



남양주문화원

제12기 남양주시 향토순례단

남양주문화원(원장 이창수)은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2박 3일간 관내 남녀 초등학교 4·5·6학년생 및 중학생 등 120명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향토순례단을 모집, 봄방학을 맞아 우리 고장을 직접 답사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심신수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건전한 마음과 강인한 체력으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게 한다는 취지로 2월 18일 오전 9시 남양주시청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홍릉과 유릉, 사릉, 광릉, 봉선사 대종, 자연사박물관, 흥국사, 덕릉마을 산신각 등의 답사를 마치고 저녁에는 '노래로 배우는 환경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호서대 이기영 교수의 강연으로 1일차 일정을 마쳤다.

다음날인 2일차 코스로는 수종사와 팔당댐, 다산 유적지, 모란미술관, 화도 3·1운동기념비 답사를 가진데 이어 멤버십 트레이닝과 레크레이션으로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에는 백봉산 등반과 남양주시청으로 연결되는 자연탐사 행군에 이어 해단식으로 2박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익산문화원

복주머니 문화봉사 공연

익산문화원(원장 김복현)은 1월 20일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고재마을 게이트볼장에서 복주머니 문화 봉사공연을 가졌다. 지난 1월 5일과 6일에 이어 열린 이날 행사는 코스모스연예인이 주축이 되어 함라면주민자치센터와 신등교회 등 지역의 주요 단체들의 협력아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소머리국밥 나누기에 이어 마을주민의 장기자랑과 풍물한마당이 펼쳐졌는데 익산문화원 김복현 원장은 '시골의 훈훈한 인심과 정겨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복주머니 문화 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밝고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경문화원

문경의 마을지 발간 워크숍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2월 13일 문화원 강당에서 문경의 마을지 1-산북면 서중, 대상, 대하, 김용리 편의 발간을 위해 김학모 향토사연구소장과 연구원들을 비롯한 연구진 사이에 의견 교환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문경의 작은 마을에서 풍성하게 간직하고 있는 문화의 면면을 조사, 학술적으로 보고하게 될 이 사업은 작년 8월부터 현장 답사를 비롯해서 집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마을 세거씨족인 장수황씨, 안동권씨, 안동김씨, 인천채씨 문중의 보책을 기초로 '마을의 선사유적' (안동대 사학과 임세권 교수), '近峯書院의 설립과 배향인물' (안동대 동양철학과 이해영 교

수), '마을의 인문 자연환경' (안동대 동양철학과 윤천근 교수), '퇴계당 권상로의 삶과 문학' (안동대 국문학과 진재강 교수), '발굴자료를 통해 본 외손봉사' (문경옛길박물관 안태현 학예사), '일제 식민지 지배 하 마을사람들의 삶'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강윤정 학예실장), '마을의 형성과정과 세거성씨' (안동대 사학과 정진영 교수), '마을의 민속과 동계' (안동대 민속학과 한양명 교수), '마을의 건축' (안동대 건축학과 정연상 교수) 등이 수록되며, 이 밖에도 '불교와 金龍寺', '淸臺 權相一의 향촌생활과 문학세계' 등 다수의 연구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과천문화원

「秋史 金正喜 研究(청조문화 동전의 연구 한글완역본)」 출판발표회 개최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에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시가 주최하고, 과천문화원 추사연구회가 주관하여 「秋史 金正喜 研究(청조문화 동전의 연구 한글완역본)」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 책은 19세기 한중일의 문화흐름을 만들어낸 추사 김정희





에 관한 연구서의 한글 완역본이다. 추사 연구의 권위자인 일본인 학자 후지즈카의 '청조문화 동전의 연구'의 한글완역본으로 이번 책으로 인해 조선 후기 최고 석학이자 서예가인 추사 선생의 국제적인 활약상을 한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추사 연구의 본격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인문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추사와 후지즈카의 학문적 인연을 다시 살피고 일본에서 반환된 추사 유물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수 과천문화원장의 인사말과 여인국 과천시장의 기념사, 안상수 국회의원, 백남철 과천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충구의 번역서 소개가 있었다. 또한 생각의 나무 박광성 대표와 윤철규, 이충구, 김규선, 김영복 씨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강동문화원

「좋은동네」 겨울호 발간 기념 간담회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이 지난 21일 신년인사회 및 계간지 「좋은동네」 겨울호 발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내외 인사와 계간지 집필작가, 문화원 관계자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강열 강동구부구청장, 김충환 국회의원, 권용태 문화원연합회 고문, 전재동 초대문인협회장, 이종춘 민주평화통일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원달 원장은 인사를 통해 “문화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축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아직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강동문화원은 계간지 발간, 문화대학 운영 및 강동문화와 예술발전을 위한 좌담회 등 주민들의 충실한 문화사랑방이 되기 위한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금년설계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문화원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동문화원의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문화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문화원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문화유산해설사과정 - 인천 연수문화원

인천 연수문화원에서는 역사 기초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향후 '연수문화원 문화유산해설사' 자원활동가로 활약하실 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교육기간 | 2009. 4. 20~11. 23
- 교육시간 | 이론-월요일 13:30~15:30
 탐방-토요일 10:00~16:00
- 교육장소 | 연수문화원 강의실(연수구청 7층)
- 접수기간 | 2009. 3. 26~4. 18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연수문화원 회원 가입 후 신청가능 /선착순 마감)
- 접수대상 및 자격조건 | 한국사 관련 기초교육수료자에 한함(40명)
- 접수문의 | 연수문화원 사무국(032-821-6229)
- 수강료 | 무료(탐방시 도시락 및 입장료 개인부담)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사진포함), 서약서, 역사관련 기초교육 수료 확인서
- 교육내용 | 인천의 역사와 문화, 문화재로 배우는 우리역사(불교문화재, 궁궐, 왕릉, 건축, 그림 등) 체험학습을 통해 배우는 다양한 교수법(역사신문 만들기, 북 아트, 연극놀이 활용 방법 등) 탐방보고서 및수업지도안 만들기

※ 사정상 일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 포천문화원

포천문화원에서는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편지 쓰기를 장려하고 가족 간, 이웃 간, 사제 간 훈훈한 사랑의 이야기를 수집 및 전파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내용
 - 가족 간, 이웃 간, 사제 간의 훈훈한 사랑의 이야기
 - 어려운 역경을 극복한 사례 등 미담사례
 - ※ 원고분량200자 원고지 8~9매 이내
- 공모대상 | 고등학생 이상(대학생 및 일반인)
- 공모기간|연중 공모
- 공모방법
 - 홈페이지, E-mail, FAX, 방문접수 등
 - 주소 | 포천시 신읍동 중앙로 148
(전화 031-532-5015, 5055)
 - 홈페이지 | www.pcmh.or.kr (참여마당)열린글밭 게시판
 - mail | kgpc1986@yahoo.co.kr
 - fax | 031-536-1020)
- 심사 및 시상
 - 분기별 시상
 - 장원 1점, 차상 1점(우리 농산물 상품권)
 - 발표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 ※ 장원 작 '포천문화사랑' 에 게재
- ▽ 작품 심사 결과 당선작이 없을 수도 있음
- ▽ 작품 제출 시 글 하단부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요망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문화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문화원 원사 이전

남양주문화원(원장 이창수)은 그동안 기존 건물의 신축공사로 도농삼거리에 임시로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보아왔던 문화원이 신축 건물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월 14일을 기해 원래의 자리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산743으로 이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하는 '러브인 아시아'

다문화가정, 일반시민과 함께 2.21(토)
서울 개막공연관람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1일(토) 15시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리는 다문화 국악뮤지컬 '러브인 아시아' 공연을 다문화가정, 일반 시민 400여명과 함께 관람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희망 프로젝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중수)와 한국전통문화예술단 소리나루(단장 이영태)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다문화가정의 이야기를 소재로 우리 주위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 개막공연에는 일본, 필리핀, 파키스탄 등 아시아 각국 대사들도 함께 관람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서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러브인 아시아' 공연은 21일, 22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주말마다 경남, 경북, 전남, 충북 등 10개 시도에서 무료로 공연된다.

공연 일정 및 관람 소감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러브인 아시아' 배너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 곳곳에서 겨울가뭄으로 고생하는 태백시민에 지원의 손길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인해 강원도 전역이 식수난에 허덕이며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남부권 광역상수도원인 광동댐의 수위는 25%대로서 1989년 취수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태백시는 5대의 소방차와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관리단의 급수차 2대, 살수차 11대를 임대하여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5만 여명의 생활용수 대책으로는 어렵도 없는 형편이다. 태백문화원 권영한 원장은 지난 1월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이러한 태백시민의 식수난을 호소함으로써 즉석에서 최중수 회장을 비롯하여 관악문화원 김윤철 원장이 생수 2리터짜리 5천 개를 곧바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태백시민에게 식수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2009년 2월 17일, 마포 문화원은 자매 결연을 맺은 정선 문화원을 통해 최근 장기간 겨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생수 전달식을 가졌다. 이선재 마포 문화원 원



장을 비롯 문화원 임원들과 각 분원 회원 등 문화가족의 정성으로 강원도 정선 문화원을 방문하여 2리터 생수 3000병을 전달했다. 이번 생수 전달식은 드림관광(버스)과 디코아트(현수막)의 협찬과 세방우 인터리어, 양원지역 봉사회의 성금 기부로 훈훈함을 더했다. 또한 부산지회에서는 2월 11일 원장단 회의를 통해 9개 문화원에서 10만원씩, 지회에서 10만원을 보태 총 100만원을 모아 태백문화원으로 기증해 문화원 가족들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문화 편집회의

문화원의 소식과 대외적 문화 정보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지난 2월 4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우리문화 편집회의를 가졌다. 우리문화의 편집위원으로 한춘섭 성남문화원장과 박덕규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새로이 위촉해 박효환 대신문화재단 사무국장과 김종광 주서구문화원장과 함께 우리문화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최중수 회장은 인사말로 우리문화가 종전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변경 발행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문화가 발전적인 잡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편집회의에서는 우리문화 발전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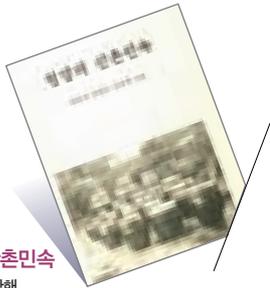
한춘섭 위원은 잡지 개편에 따른 인력이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서울, 수도권 내의 문화원에서 협조 받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향토사 발굴 차원에서 각 호별 지역의 대표적인 문중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덕규 위원은 지질에 관한 문제와 표지에 정보 넣어(특집 기획 등) 호기심 유발하고, 표지 소스로 지방 문화원의 작품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특집 기획 등의 재배치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우리문화 표지그림을 문화원 성과물을 선별하여 제작하도록 말하였다. 김종 위원은 발행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의지를 피력했으며 우리문화에 대한 성격을 확실히 하여 전문지와 교양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좀더 읽을거리가 있는 잡지가 될 것을 당부했다. 박효환 위원은 정보와 콘텐츠의 구분이 시급하고 콘텐츠 구성방식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담, 인터뷰 등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지면이 줄었으므로 문화원의 일반적 소식을 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문화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의견에 관해 최중수 문화원연합회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잡지 발전에 참고하겠다고 밝히며 우리문화에 대한 고민과 추후 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문화는 종전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조정되어 2009년 1월호부터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채강희 주간은 2월까지 우리문화 작업에 참여하고 사임했다.



청양의 산촌민속
청양문화원 발행

561m 높이의 칠갑산은 청양군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산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칠갑산은 유순한 산자락이 많아 폭이 넓은 산으로 주민들에게 목재와 딸감을 제공해 주고 계절마다 여러 산채를 제공하고 있어 청양의 산촌 문화를 빼놓고는 생활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수렵으로도 유명하여 꿩, 토끼, 노루, 고라니, 뱀이 지금도 서식하고 있으며, 수호신으로 산신을 모시고 해마다 산신제도 전승되고 있어 길목마다 장승이 서 있다. 이 책에서는 농림업과 광업, 채취, 사냥 등 산간마을의 생업을 비롯해서 계절별로 농경세시, 공동체 신앙과 노동, 물질문화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특히 농경세시로 2월 초하룻날 공복이여기, 3월 삼짇날은 재비가 오는 날이라 해서 길일로 생각하여 이 날은 갖 태어난 아기의 첫머리를 깎는 날로 배안머리 깎기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주의 전통마을 7
공주문화원 발행

선비정신 바탕위에 새 문화의 장을 여는 월송동, 웅진 백제를 움직이던 사대(노)의 고장 주미동, 속중 태실이 깃든 곳 태봉동, 공주의 끝마미 유구를 입석리, 효도 청정마을 유구를 탐곡리, 연안이씨의 터전 이인면 만수리, 전주이씨 세계지였던 곳 탄천면 견동리, 낮은 산을 병풍처럼 두른 마을 계룡면 향지리, 호행비와 열녀비가 있는 마을 계룡면 향지2리, 금강변의 말바위 마을 반포면 미암리, 국군이 살아숨쉬는 곳 장기면 대교리, 왕자의 혼이 살아 있는 마을 의당면 태산리, 명당자리가 있는 구자골 정안면 어물리, 통천보와 함께한 역사 우성면 동대리, 금강의 마지막 조산소가 있던 우성면 죽당리, 사곡면의 옛 면소 터 사곡면 계실리, 국사봉 아래 산골마을 신평면 봉강리, 진행 중인 산촌문화의 전형 신평면 쌍대리 등 17개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각각 자연환경과 어원, 연혁, 설화, 민속, 유물과 유적, 전설, 지명유래 등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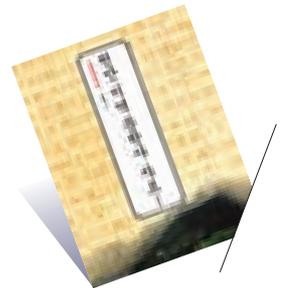
인천의 숨은 名인을 찾아서
연수문화원 발행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인천의 숨은 名인을 찾아서' 도 선배들이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채록을 해서 만든 것과 같이 이번에도 그 후배들이 앞 다투어 참여함으로써 이 책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연 수문화원 김원옥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원을 조사하고 또 토론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학생들에게 싹틔운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명인과의 만남을 통해 체험담을 듣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됨은 물론 그런 삶을 통해 자신을 성찰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는 한편 지역의 숨은 명인들의 삶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져 이들의 길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인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인 박성희 선생의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를 비롯해서 연극인 손민목 선생의 '고난과 환희, 연극인으로서의 삶', 점화랑 표구사 함철호 선생의 '신뢰로 걸어온 외길 인생 36년', 리어석 기타오케스트라 리더석 단장의 '기타, 마음으로 듣는 음악, 한복집 이교자 대표의 '한복, 대를 이어서' 등 5편을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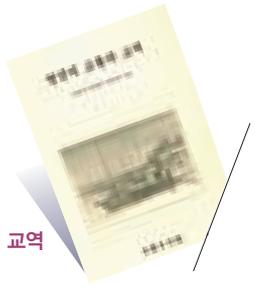
동대문구청토사
동대문문화원 발행

동대문문화원 개원 10주년에 맞춰 발행한 '동대문구청토사' 에는 동대문구의 역사를 비롯해서 신실동,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동, 진능동, 답십리동, 장안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등 마을의 유래와 천장산, 배봉산, 바리봉, 인화현, 떡전치 및 중앙천, 청계천, 전농천, 회기천 등의 산과 하천, 선농단, 청량대, 보재원 터와 서울약령시 등 문화유산, 선농제향, 동방청룡제향, 동신제 등 전통문화행사와 동대문구의 역사 인물 및 전래민담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실고 있다.



천안지역 문학사 자료 1
성환문화원 발행

천안은 예로부터 시인 목객이 많은 고장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詩才 金得臣과 시인이면서 서화에도 당대의 제일인으로 꼽히는 吳璜 등 천안이 지닌 문학적 자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문학사 자료를 펴내면서 성환문화원 송용삼 원장은 '천안 지역 문학의 실체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문 연구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천안이 지닌 문화적 정체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 이라고 말하는 한편 필자인 단국대 김근태 박사는 순암 안정복이 편찬한 대록지(大麓誌)와 한여 등이 편찬한 영성읍지(寧城邑誌)를 바탕으로 천안지역에서 활동한 문인으로 각시정(郭始徵), 권현(權顯), 김만중(金萬鍾) 등 47명의 자료를 문집 중심으로 정리하였다고 밝히면서 다시 이들 문인의 인명을 사전식으로 정리하고 본관, 자호, 경력 등을 덧붙였으며, 행정, 모갈, 신도비, 서간 등 생애자료와 다른 사람의 산문, 운문, 본인의 산문, 운문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또 번역자료가 있는 경우, 번역문을 원문에 앞서 수록해 놓았다.



청양의 교통과 교역
청양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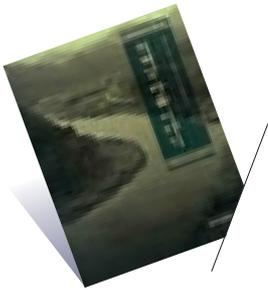
청양은 서쪽에 위치해 있는 홍성, 서산, 당진이나 남쪽에 있는 아산, 예산, 부여, 논산 등지를 가지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길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고, 길이 있으므로 그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왕래가 용이해졌으며, 교역도 편리해졌다. 만일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폐쇄된 상태에서 고립되어 좁은 공간에서 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양문화원 정재권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러한 도로를 통하여 우리 생활에 소요되는 물산의 교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지금의 청양이란 사회가 이루어졌을까를 고찰함으로써 이후 이 고장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청양의 교통과 교역의 개괄적 특징과 청양의 교통과 민속, 청양의 교역과 민속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너른 고을 옛이야기
광주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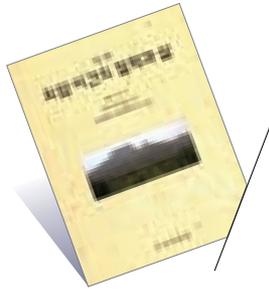
1900년대 초가만 해도 드넓은 지역이 광주(廣州)땅이었다. 광대한 성곽을 비롯해서 지형적으로 남한산의 첩첩 산세가 협준하면서도 아름다워 관광지로 정평이 나있지만 곳곳에 남겨진 설화와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광주문화원 이삼복 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설화집이 단순한 민간에서 전해오는 설화의 차원이 아닌 역사를 조명하면서 그 시대의 삶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임을 강조하고 있듯이 역사에 얽힌 이야기와 남한산성에 얽힌 이야기, 지명유래 이야기, '지곡팔경에 스며든 단종애사' 분원도공의 예술혼, 곤지암에 살아있는 신립장군, 허난설헌의 시혼 등을 그린 仁義禮智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엮었다.



적벽강 마을이야기
금산문화원 발행

'조선의 이태백'으로 불리며 이름 높던 시인 이안눌(李安訥 1571~1637)선생은 적벽강 금수(錦水)를 '장수에서 발원하여 내려온 물줄기와 무주의 덕유산, 진안의 마이산, 용담의 주출산, 무주의 대덕산에서 흐르는 물을 금산 땅 부남(富南)의 소이진에서 모아 굽이굽이 꿈틀거리면서 북쪽으로 흘러 옥천 양산현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소이진에서 도파리에 이르는 오십리 붉은 바위 열두 절벽, 열두 여울과 열두 소를 굽이굽이 휘돌아 지나는 물길은 가히 절경의 연속이다. 이렇게 흘러 처음으로 만나는 그림 같은 마을 방우리를 지나 섬속의 섬 농원마을과 한 장의 풍경화를 보고 있는 듯 수통리와 도파리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가노라면 시인이 아니더라도 사상이 떠오를 것만 같은 느낌이다. 이 책 '적벽강 마을이야기'는 옛날부터 기쁨과 서러움을 실어 나르던 나무터를 중심으로 물길이야기를 비롯해서 민물고기, 글씨문, 풍수, 지명, 농사, 나무와 들꽃, 마을, 민속이야기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주변이야기를 다양하게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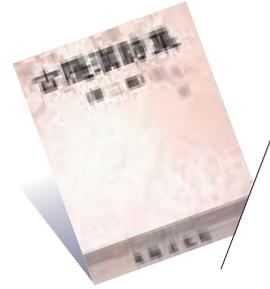


역주 외암 인간의 철학과 삶
온양문화원 발행

외암(巍巖) 이간(李柬 1677~1727)선생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성리학의 양대 학맥의 하나인 畿湖學派의 중심인물로 독창적인 人性物性同論을 주창하여 人性物性異論을 주장하였던 남당(南塘) 韓元震(1682~1727)과 대립함으로써 湖洛論爭의 단초를 연 洛論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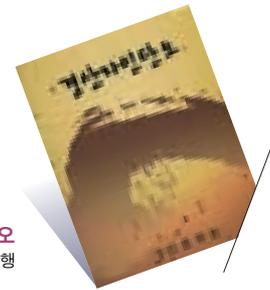
'외암유고'는 외암의 次子 인계(麟溪) 이원병(李顯炳)이 1760년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총 16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집에는 철학, 문학, 생명, 환경부문에 관한 그의 사상과 의식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지식계의 동향과 학술적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실려 있어 조선 후기 지식사를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외암은 그의 고조부, 증조부, 조부가 각기 군자감 주부, 첨지중추부사, 절라도 수군절도사를 지냈고, 양부와 생부 또한 부호군, 군수를 지낸 양반 집안으로 과거응시의 권위가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터이나 그는 약관을 고비로 학문에만 종사하려는 마음을 굳혔던 듯하다. 외암은 1677년 숙종 3년에 태어나 영조 3년 51세로 생을 마치기까지 한국유학사에서 禮學時代라고 일컬어지고, 人性物性의 同異論辨으로 해서 성리학설의 독특한 탐구가 한껏 빛을 발하던 시대가 곧 외암의 시대였다.



古隱漢詩集
영양문화원 발행

시는 한 시대의 문화와 혼이 담겨 있으며 특히 古詩에는 선현들의 희로애락과 삶의 지혜를 시로 표현하여 진해음으로써 하나의 시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그리고 예술적 혼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듯 한시에는 시대적인 민중의 삶의 현장을 잘 나타내는 한국적인 정서가 가장 짙게 표출되는 특징이 있으며, 절제된 언어의 형식과 품격 속에 사상, 감정, 사실풍(寫實風), 우국충정 등 다채로운 작품의 세계가 들어있는 함축적인 문학으로 선인들의 생생한 체취와 지혜를 느낄 수 있다. 영양문화원에 부설한 한시동호인으로 결성된 古隱漢詩研究會 회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각고 끝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시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경산자인단오
경산문화원 발행

경산자인은 지명이다. 자인단오는 1973년 '한장군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면서 '한장군문화제'로 거행하였고 이후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1996년부터 '자인단오 - 한 장군놀이'로 명칭을 정착, 단오행시를 거행해왔으며 2007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 명칭을 '경산자인단오제'로 변경 받아 그해 6월 제32회 단오행사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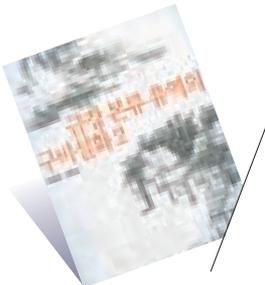
이 책에서는 자인단오의 개설과 자인의 문화 지리적 배경, 자인단오의 구성, 호장국, 큰굿 등에 이어 자인팔대, 큰줄 당기기 등 자인단오의 의미와 변천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수록해 놓고 있다.

慈仁의 지명 유래, "자인은 원효와 설총을 낸 고장이므로 불교의 자비의 慈 자와 유교의 仁 자를 합한 명칭"이라고 한다. 재비와 인은 두 종교에서 각기 최고로 삼는 덕목이니, 이는 '자인'의 지명에 대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인의 옛 이름인 노사화(奴斯火)를 자인으로 개칭한 시기는 신라 35대 경덕왕 16년 (757년)이다.



금강 분류 유역의 구비설화 1
금산문화원 발행

행정구역으로 볼 때 금강분류 유역은 부리면과 제원면, 군북면으로 볼 수 있다. 부리면의 이야기는 신아홉분의 노인으로부터 165편을, 제원면의 경우 신아홉분이 143편을, 그리고 군북면은 신여덟 분이 137편의 전래설화를 구술하여 자료를 모아 발간하게 되었다. 금산문화원 김호태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세계화와 지구화가 세상사는 이치의 주류가 될수록 지방화와 분권화가 더욱 절실해지는 작금의 세태로 미루어볼 때, 우리가 안데르센의 동화와 이솝 우화는 줄줄 꿰면서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전해지는 얘기를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고유의 구비설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1·2권으로 분권 출간한 것은 방대한 분량으로 독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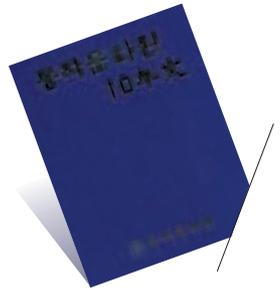
금강 분류 유역의 구비설화 2
금산문화원 발행

행정구역으로 볼 때 금강분류 유역은 부리면과 제원면, 군북면으로 볼 수 있다. 부리면의 이야기는 신아홉분의 노인으로부터 165편을, 제원면의 경우 신아홉분이 143편을, 그리고 군북면은 신여덟 분이 137편의 전래설화를 구술하여 자료를 모아 발간하게 되었다. 금산문화원 김호태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세계화와 지구화가 세상사는 이치의 주류가 될수록 지방화와 분권화가 더욱 절실해지는 작금의 세태로 미루어볼 때, 우리가 안데르센의 동화와 이솝 우화는 줄줄 꿰면서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전해지는 얘기를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고유의 구비설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1·2권으로 분권 출간한 것은 방대한 분량으로 독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秋史 金正喜 研究
과천문화원 발행

일본의 후지츠카 치카시(1879~1948) 선생은 오래 전에 과천시에 세한도를 기증한 바 있으며 그의 아들인 추지츠카 아키나오(1912~2006) 선생은 선친인 치카시의 뜻을 이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2006년 초에 과천시에 기증하고 그해 7월에 영면하였다. 아키나오 선생은 방대한 추사 관련 자료를 기증하면서 이 책의 한글 번역본 발간을 간절히 바라며 출판비의 일부를 쾌척하였다. 이렇듯 귀중한 추사 관련 자료를 기증 받는데 역할을 담당한 과천문화원 최중수 원장은 한글 번역본을 발간함으로써 아키나오 선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하면서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추사 선생의 삶과 예술혼을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발간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한편 아키나오 선생은 한글 원역본에 드리는 감사글에서 추사연구회가 아버지의 유저(遺著)- '清朝文化 東傳'의 연구-嘉慶·道光學壇과 朝鮮의 金阮堂'을 한글로 번역하겠다는 배려를 삼가 접하고 감동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 영전에 고맙다고 하면서 이 감격과 환희를 표현할 길 없다고 감복해 하고 있다. 97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에서 김정희의 가계와 어린 시절부터 연행편과 귀국편, 일본학자들에 대한 김정희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통 경학의 대가인 추사 선생의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다.



동작문화원 10年史
동작문화원 발행

1998년 12월 창립한 동작문화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2000년 전국 문화기반시설운영 평가와 2004년 전국문화원 운영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문화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짧은 시일에 발전을 가져온 데는 맞춤형 문화강좌와 구민들의 동참, 그리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시진으로 보는 동작문화원 10년을 비롯해서 10년의 발전취, 사업, 조직 구성원, 자료 등으로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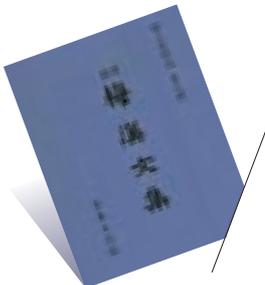
새내 유역의 구비설화 금산문화원 발행

새내 유역은 봉황천이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남일면과 남이면을 일컫는다. 이 책에서는 남일면의 간천리, 대방리, 매곡리, 상곡리, 석동리, 상곡리, 하곡리, 흑암리 등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비전승 문학은 생활문학이기 때문에 늘 일상의 삶과 함께 하면서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구실을 해 왔다. 특히 구비전승 설화는 이야기라는 일상의 문학형식을 통해 공동체의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 구성원 상호간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윤리와 도덕을 제공해 주거나,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 구성원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해소시켜 주며 끈끈한 정도 나누게 한다. 이렇듯 우리 선인들은 이야기 문학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정체성이 상실되고 공동체 해체위기에까지 오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발간하는 구비설화집이고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버드내 유역의 구비설화 1,2
금산문화원 발행

유등천 혹은 유천이라고 불리는 버드내는 금산 북서부에 위치한 복수면과 진산면, 추부면에서 발원, 북으로 흐르면서 금산의 문화가 대진과 연결되는 통로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질곡의 시간을 함께 쌓아 온 유구한 역사와 함께 금산의 관광산업과 제조업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법정 마을이 32개리나 되는 방대한 지역으로 제1권에는 이 지역 및 조사된 설화를 개관하고, '금산 지역 여성구술자의 이야기 현황과 세계관'이라는 연구논문과 추부면 지역 10개리의 자료를 수록하고 제2권에는 진산면 13개리와 복수면 9개리의 방대한 자료를 각각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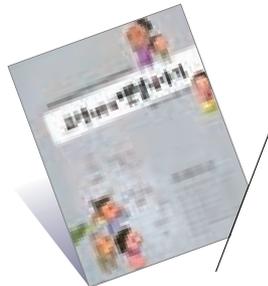
梅溪文集
김천문화원 발행

매계(梅溪) 조위(曹偉) 선생은 1454년 김천 봉산면 인의동에서 출생, 홍문관 수찬과 승정원 동부승지, 도승지, 성균관 대사성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명문장가로 명성을 널리 떨쳤으며 선생의 매형이자 사림의 중주(宗主)로 추앙받던 점필재(佔筆齋) 金宗直 선생과도 교류하던 선비였다. 선생은 성종의 명으로 당나라 두보의 시를 언해하여 이것이 두시언해(杜詩諺解)의 초간본으로서 국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선생은 사회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도 우리나라 유배가사의 호사로 일컬어지는 만분가(萬憤歌)를 집필하는 등 그의 문학에 대한 열정은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였다. 이와 같이 선생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멸실되었으나 훗날 출어진 유적들을 수습해 엮은 것이 이 매계문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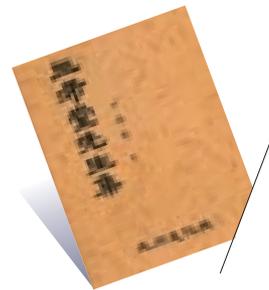
과천禮문화
과천문화원 발행

과천문화원 최중수 원장은 이 책의 발간사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의 변동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인 예절과 인간성 상실에 따른 가치의 혼돈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특히 외래어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언어예절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 돌아보고 그 대안을 찾고자 문화체육관광부 황준석 국어민족문화과장과 이만우 여주문화원장, 이일재 선생을 비롯하여 과천 소재 학교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언어예절 특집을 꾸며보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전례연구원 김득중 원장이 말하는 '부부간의 예절', 성신여대 김주희 교수의 '21세기 혼례문화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과천예원 김계숙 원장의 '오늘의 혼수문화와 나아가 갈 방향',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테마에서 이 '무식이 무례' 등을 비롯해서 동화와 만화로 보는 예절 문화, 고전으로 보는 예절, 예절체험 등 다양한 예문화를 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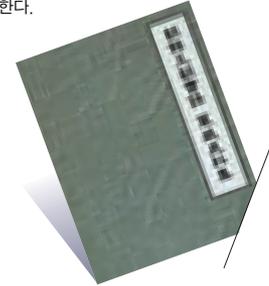
고성지방의 옛날이야기
강원도 고성문화원 발행

지역주민의 감성과 정서의 뿌리가 된 고성지방의 옛날이야기는 금강산과 푸른 동해의 수려한 산수를 배경으로 후덕한 인심과 사랑, 해학과 풍자가 어우러진 이곳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역사라고 저자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또 고성지방의 유래와 옛날이야기들의 양상을 설명하면서 고성의 정체성과 구전으로 이어 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것이 고성지방 옛날이야기의 근간이라고 말한다.



三希堂先生集(上·中·下)
대전문화원 발행

삼희당 윤석봉(尹錫鳳, 1842~1910)선생은 본관이 파평으로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증암 김평묵 문하에서 수학한 후 1890년대 보령 웅천에 낙향해서 주자와 송시열의 영당인 集成堂을 건립하고 지역의 문풍과 위정척사의 학풍을 진작한 화서학파의 학자이다. 삼희당문집은 전체 12책 24권으로 방대한 분량이나 여기에 수록한 문집은 그의 손자 尹柱河가 윤석봉의 저술을 필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권1에는 歌4수, 시(詞)·부(賦) 각 1편이 수록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시이다. 권2와 권3도 시로서 삶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일, 시대의 암울함을 표현하는 내용 등으로 다양하다. 권4에는 소(疏)7편이 수록되었고 권5부터 권14까지는 모두 서간이다. 권16과 17에는 기(記)가 수록되었고, 권18에는 서발(序跋), 권20, 21에는 제문, 권22에는 묘갈명, 묘지명, 묘표, 행장, 권23에는 잡저가 수록되어 있다. 윤석봉의 폭 넓은 활동범위와 보령지역 화서학파 인맥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한편 삼희당선생집이 나오기까지 1996년부터 2002년 문집을 수소문하여 입수하는 과정까지의 우여곡절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으나 멸실 위기에 처했던 문집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이번에도 영인 발간, 모두는 문집의 재탄생 과정으로서 하루속히 번역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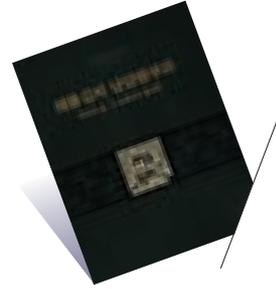
朝鮮王朝實錄 軍威史料集
군위문화원 발행

옛 군위현과 의흥현의 기록과 관련 있는 사실들을 모아 실록 내용에 산재되어 있는 군위에 관한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으로서 태조와 세종, 문종부터 연산군, 중종부터 명종에 이르는 조선 전기와 선조 이후 고종에 이르는 조선 후기로 시대구분을 하면서 실록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묶어서 발간한 사료집이다.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무신의 길, 그 오백년의 발자취
 화성문화원 발행

문 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시대에 무반으로 이름을 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백년이라는 긴 세월을 화성에 세거하면서 무반 가문으로서의 전통을 이어 온 해풍김씨 남양쌍부파의 역사는 화성 지역사의 한 단면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무반가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주변에서 8대 장신집안으로 불리던 해풍김씨 남양쌍부파는 오랜 기간에 걸쳐 통제사나 병마절도사를 다수 배출했고 형조판서에 오른 인물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 집안에서는 3백여 권에 달하는 고문서가 전해지고 있다. 순수한 무신집안에 이 정도 분량의 고문서가 남아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로서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무신에 대한 오랜 편견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풍김씨의 역사는 조선시대 무신들의 삶을 드러내주는 지표로서 무신들의 삶과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역동적인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천안의 민담(성황읍편)
 성환문화원 발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은 1970년대부터 이어진 이농현상으로 한 마을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노령인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의 기성세대는 옛날이야기나 동네 유래같은 것을 들어가면서 지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삼십년 후면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옛날이야기는 허공에 흩어지고 말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에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한 곳이 사라진다는 심정으로 천안의 28개 읍, 면, 동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성황읍편 민담을 조사하여 발간하게 되었다고 성환문화원 송용삼 원장은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다.



마을이야기
 노원문화원 발행

수락산과 불암산의 두 명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노원지역은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유물과 지역 아사가 곳곳에 담겨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유명하다. 수락산의 매월당 자취와 불암산 고연택 장군의 자취를 비롯해서 '마을'에 대한 고찰과 노원을 더욱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그동안 신문과 문화지 등에 간간이 실렸던 '마을이야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엮어 놓은 노원구 전래수필집이다.



원 장 동 정



전주문화원장에 서승 씨 재선임

전주문화원은 지난 1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추대를 통해 서승 씨가 재선임되었다. 원서 원장은 더욱 한국적인 도시 전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전주문화원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더욱 힘쓰며 시민들과 호흡하는 문화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승 원장은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과 우리문화진흥회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전주문화재단 이사과 호남 오페라단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전국 240개
지역을 다니며 문화를 통해
희망과 웃음을 전하는 매개자가 되고 있다.

사진은 서산 고북면 공연 모습





- 1. 1월 1일
- 2. 1월 2일
- 3. 1월 3일
- 4. 1월 4일
- 5. 1월 5일
- 6. 1월 6일
- 7. 1월 7일
- 8. 1월 8일
- 9. 1월 9일
- 10. 1월 10일
- 11. 1월 11일
- 12. 1월 12일
- 13. 1월 13일
- 14. 1월 14일
- 15. 1월 15일
- 16. 1월 16일
- 17. 1월 17일
- 18. 1월 18일
- 19. 1월 19일
- 20. 1월 20일
- 21. 1월 21일
- 22. 1월 22일
- 23. 1월 23일
- 24. 1월 24일
- 25. 1월 25일
- 26. 1월 26일
- 27. 1월 27일
- 28. 1월 28일
- 29. 1월 29일
- 30. 1월 30일
- 31. 1월 31일

“문화로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다문화 국악유지집 **러브인** Love in Asia **아시아**

2009. 2.21(토) - 3.29(일) 지역순회공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문화재단협회 소리나루

● 문의 02-481-1031(소리나루), 02-3704-9726(문화체육관광부)